COR.1-21
Vol. 11 (47)

整理儀軌

四十七

城役

共四十八

COR
1-21
11
47

정의의 권 권지 수심칠

화성성벽 제칠

ECOLE des LOIS VIVANTES

COR. 1-21
Vol. 11(47)

경ᄋᆡ의궤 권지ᄉᆞ십칠

화셩셩역ᄀᆡ졔ᄎᆞᆯ

ECOLE DES LANGUES ORIENTALES VIVANTES

병진ᄉᆞ월ᄉᆡ십뉵일ᄉᆞᆫ시에화양ᄃᆞ리지ᄒᆞᆫᄂᆡ이ᄂᆞᆨᄒᆞᆫᄂᆡ로바
셔남각ᄂᆡ뉘라ᄎᆞᆯ로ᄀᆞᆯ산남ᄉᆞᆨᄒᆞᆫ가ᄌᆡ길게셩밧ᄀᆞ로배ᄀᆞ어일
빅ᄎᆞ칠십팀치ᄅᆞᆯ보ᄅᆞᆯᄃᆞᆺ게ᄂᆞ나ᄂᆞᆫᄃᆞ광ᄉᆞᆺ떠ᄀᆡ용ᄅᆞᆯ 셩이ᄅᆞᆯ두편의봇ᄂᆞᆫ 춤은길ᄋᆡᆯ홈 ᄅᆞᆯ린

BONS
№ 7.693

ᄃᆞᆯᄂᆞᆨ호ᄅᆞᆫᄉᆡᄀᆞ남젼ᄃᆞᆨ졀ᄒᆞᆫᄭᅩᆺ희ᄑᆞᆯ각ᄉᆞᄒᆞ허ᄒᆞᆯ졍ᄒᆞᆫᄃᆡ개
셔남젼ᄲᆡᆯᄒᆞᆫ이ᄃᆞᆺ이ᄅᆡᄂᆞᆫ리ᄅᆞᆨ셩밧ᄀᆡ녈ᄆᆞᆫᄃᆞᆯᄂᆞᆷᄒᆞᆫ아
ᄃᆞᆯᄋᆞᆯ희ᄉᆞᆸᄒᆞᆫᄃᆡ만일방ᄉᆞᄒᆞᆫ미ᄆᆞᆫᄇᆞ서ᄅᆞᆯ젹ᄋᆞᆯᄒᆞᆫ여ᄂᆞᆷ
ᄂᆞᆫ젼은게ᄒᆞᆫ번일셩의ᄒᆞᆫ근심ᄒᆞᆫ미ᄒᆞ져의ᄉᆞ젼ᄆᆞᆷ은

백리거시매이에용을와각노를베프니이의글기젼혀
섯각이라우흔부를를리쳣흔지정라음문산상성과
곳치흔용을허르인흔여니어라스리라

십구일뭐어일븍즙라숨여일빌즙을 ᄂᆡ하흔옷샤의
창근뿔을굿셧으로일흔승라흔가지로감등쵀장원역흔장
흔을반즙흔여졈심흔게흔오시근쓸이심브이일젼여이빅
미와뭐어일쳔즙을 ᄂᆡ하흔옷시근를쳥ᄂᆡ우졍의게
젼뎡흔오사를일젼의노리은바어흔말솜 ᄒᆞᆼ히연스에
너너이ᄂᆞ리옷흔여시매이제라시노리ᄋᆞᄂᆞ흑ᄅᆞᆫ로지

숙흔근졈심미라은의창근의ᄉᆞᆫ빨ᄂᆞ틱흔응흔여흔와흔
가지로븐즙흔흔ᄀᆞ혀ᄋᆞ리를뿔라흔흔여뻐들니라 ○ 이십
삼일셧여ᄌᆞ젼ᄂᆞ기졍뿌리라흔흔ᄀᆞ록의감흔시브일원정

너년이 즉리 못숭 뻐시매 이제 다시 노뇌이록 진로지

숙숭은 점심미 간은의 랑근의 는 빨르 취숭호 뻐어 한와호는
가지로부 급은 중 행리를 벌라 숭여 벗드니라 ○ 이십
삼일 선생 뻐 를 청 니 여 정 뻐 라 숭 록 의 감 숭 시 부 을 원 정
부 쾌 장 은 국 십 주 원 은 각 미 일 스 숭 절 어 한 이 개 육 어 한 십
칠 개 오 정 부 서 리 십 팔 인 은 각 미 일 스 숭 육 어 한 십 스 개 오
각 식 궁 장 현 수 삼 십 스 병 은 각 미 일 스 숭 절 어 한 일 개 육
어 한 십 칠 개 오 각 식 궁 장 일 천 일 백 주 병 은 각 미 일 스 숭
위 어 한 시 부 는 국 개 니 점 심 미 는 합 칠 석 스 닥 려 라
오 월 초 는 국 일 은 는 등 게 진 연 일 빈 이 십 오 냥 석 스 칠 십 오

병을 다하고 오사감등당상이하정부제장은지부근등
반급중에 은금에 는브를정가은리은금정이라 고는글이
이서부모의은혜금중고를금성으로고며 금말게고말씀
이라 그정을이쁘로잇근이는진언글거니불가의서게어라
고는리라 그정을말씀이개개사름이삼기매부모의각혈
을은고근부모의정녁을라 고여이믜자라매 능히감리못
고물주비고는부체어뎟비너져이정을라게어를지을
서부모의국로고신은혜를국진히행을야부국하
철이리로라 고는번드르매 치기쉽게고야고며 금책연

이뿐음을중고근거면히현성이회복고야각각어버이
섬기물질로정성이라 고게고고불정이비록이라의육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연희 전성의 회복 중앙 각 여러 성경 기록을 비교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셋째 성령으로 나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충시는 성령으로 나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죽 현 노의 강연 중 말씀 전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물질을 허무적 물질을 아르는 노의 버서나 이 말씀인

섬기 물질 노 정성 이라 하게 하는 불정의 비록 이라 의 학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연희 전성의 회복 중앙 각 여러 성경 기록을 비교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셋째 성령으로 나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충시는 성령으로 나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죽 현 노의 강연 중 말씀 전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물질을 허무적 물질을 아르는 노의 버서나 이 말씀인

섬기 물질 노 정성 이라 하게 하는 불정의 비록 이라 의 학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연희 전성의 회복 중앙 각 여러 성경 기록을 비교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셋째 성령으로 나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충시는 성령으로 나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죽 현 노의 강연 중 말씀 전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물질을 허무적 물질을 아르는 노의 버서나 이 말씀인

섬기 물질 노 정성 이라 하게 하는 불정의 비록 이라 의 학

•홀거슬로 치는올리라우리 성상의호리로라스리오
시미그길히만흐사 륙뿔이그정물을인그글흐뻐진연
을받조승야정의예로구행승게흐오시니을즈의쁘일흐용
샤흑이현즉룰일그근북으로를버려사름을관흑흐
야라이적금수에드리나게흐매 죨정이현연히진느
흐오샤법을버히시근본야흐로그올설을통철흐여흘
빅성을흑빠지지아니케흐올심을이같을뻐이같을즉흐
야질느감화흐게흐미쁘흘 성인의미의를우러올리
라이제역스의느리오시믄이뜨히이역스슬정의이심라여

러사름의오히느을위흐올시미라이날 반스를받즈은재
라 정이호의미루보너비그를치시물너마의이근본의사지

라이제 보소의 스리오시믄의 따히이 뗘소소등영의이심라뗘

러사름의으힌것을위호오시미라이날 밧주를밧주온재
라 성호의미루뗘노비로츠시믈노밤의이근은믐의사기지
안노리업소뗘제장비각각감 은츠제츤충안뗘소의자
랑호노라밤중장라수쳔으군이쯔흘의와젼호뗘왕왕
이길주호는스리의그말슴을뻐스리호여부으의성경을
은혜와 주궁의으슬을호오신덕화를서로즐겨화감을
노뻥이의모음이수변감중호믈가히불너라
츠칠일슈원부뉴슈됴심래뻘란호오리랑안믈밧든젼
의나은뻐를삼가작변 젼영을의지호와슈성승의복

칠월 초 일일부터 환부는 흔히 생기는 뇌염의 증보
흔으로 열이 나고 맥박이 빨라지며 의식 혼탁 혹은 혼수
혹은 경련을 일으키고 말기에 이르러 중추 호흡 마비로
사망한다 병원체는 일본뇌염 바이러스로 모기에 의하여
전파된다 잠복기는 십일 내지 십사일 정도이다
백색 식작 적혈구 혈소판 및 응고 혈장 등으로 되어
식시 혈액 중의 미엔 혈구 혈장 등이다
심장의 일종 원부 근육 조직 심내막 장기 혈관 혈
병소 나 유정이 검출 발견 되는 것이 보통이다
혈액 적혈구 혈색소 혈청 혈장 혈액 혈구 혈색소 혈청 혈장
혈액 적혈구 혈색소 혈청 혈장 혈액 혈구 혈색소 혈청 혈장

번거로이 베르미머 육만송환 호오리라만은 부득이 생각하
오니 허다한 은덩어리를 천히 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중
히 여기오매 주로 하여금 앗기오니 이제 부득이 실로
천만애호미 깊은 은혜로 의원하여 감히 이에
치제하옵거온 희로 호여금 불능으로 하오니 이는 나의 정성이 부족
함에 있사오매 황공하옵기 그지없사오며 또 이 일을 인하여
또 호여금 근심으로 초절하여 병이 더하게 하였사오니 더욱
황송하옵기 이를 데 없사오며 또 이 일을 인하여 또 호여금
장제는 환하옵고
십오일등북로로 일이오리라 하였사오니 방하소서

전이 등 젊은 일백 삼십 명으로 의이 여러 해 그 장을 연하여 하였음
이와 같이 별로 업슴으로 방화 수류정과 화홍문이라 할 의
의논하기를 이 누를 치장을 하고 근로 누를 제하 북쪽으로 의
하여 간 비난은 치장을 하고 장을 라 벽을 뽑시며 장안의
로 쓸어라 가며 벽을 뽑 하난 간 민은 지도게 하고 누라 하는 의 쓸
벽으로 중제로 인도를 아울러 게 하며 누의 수변 좌우은
각각 전안을 도랫으로 누라 하 백 척에 쓰는 상하로 등안을 쓸을
을 다 이 졸려 뽑으라 하고 미 업슴으로 터 득 뽑이 으로 산수안제
등 창 등 근의 앙들이 으로 매이 누의 은 적 불은 비로 바듬니

상남은 정개 또 은 승리라 니로 리라 하 업슴의 브로 기로
등산 뉘라 은 머니 라시 각건 리로 일으 음 은 니 상량 을

상낭은정개또은승리라니를리라퇴업의브를기를
동산뉘라은터니라시각건터로일흠은니상량을
은원은임제은욱김직찬미츳은체진은리라고글에
를모리

복이 삼귀협됴ᄒᆞᆫ신읍됸식묵지야ᄒᆞᆫ고
빅치등하ᄒᆞᆫ니근딘라언은흥지무는이를
체거복미정됴에마즈니새고을은먹을먹은거복으로들에쳔
점히든법

안ᄒᆞᆫ또고

업됸뎌처ᄒᆞᆫ업느니

일빅치점ᄇᆞᆷ에한혜원등ᄒᆞᆫ니ᄇᆞᆷ은친는ᄉᆞ저게누은문에걸

충창은근인앙들이르매이느히은천보리은비를바르니

공귀근성은 공이이믜일우믈근호야

시약유딕로라 깨기도리비잇는도호라

절뮤화성현작지리는

시위 션친믜뭘유지향이라

즉이성각호야 화성의현작호신짜흔

실노 션친의뭘유호오신드싀골이퍼엇도다

물부민은 올라수십쥬절제고

산츄슈복은 완수칠빅즉회등이라

저물이뫄히고빈 성이빈 성호야멀어수십쥬절제를지나호고

이히오히고물이졉등셔시니완연이칠빅즉이회등을지나

물부민은니 오관수사ㅣ 오ㅣ 제고

산취슈복니는 완소ᄒᆞᆯ빅ᄉᆞ희등이라

건물이ᄲᅡ히고빅셩이번셩ᄒᆞ야ᄆᆞᆫᄉᆞ섬취졀제를ᄎᆞ리ᄒᆞ고

의히ᄒᆞ고물이졉ᄒᆞᆫ여시니완연이ᄎᆞᆯ빅ᄉᆞ이희등ᄀᆞᆺᄐᆞᆨᄒᆞᆷ으로ᄂᆞ라

약고한부ᄆᆞᆼ규ᄒᆞᆫ니 관방장삼보지체ᄅᆞ

ᄐᆡ즈ᄉᆞᆫ슈이봉ᄒᆞᆫ야 신지호만년지강이ᄆᆞᆯ라

녠한나라부ᄆᆞᆼ의ᄭᅵ친규ᄅᆞ라ᄒᆞᆫ관방은삼보의형셰를장ᄒᆞᆫ게ᄒᆞ엿ᄉᆞᆯ

이에ᄌᆞᆫ나라ᄂᆞᆫ슈왕ᄌᆡ의로셔ᄉᆞᆯ마ᄋᆡ시ᄉᆞᆯ미ᄃᆡ신지ᄃᆡ현신ᄂᆞᆫ만년의ᄋᆡ부리를ᄒᆞᆫ위

능침 ᄒᆞᆫ뎌도라

취화공산에ᄋᆞ히려 학강의일ᄌᆞᆨ지ᄋᆞ로시ᄉᆞᆯ싱각ᄒᆞᄂᆞᆫ

취화ᄂᆞᆫ공산에ᄋᆞ히려 ᄒᆞᆨ강의일ᄌᆞᆨ지ᄋᆞ로시ᄉᆞᆯ싱각ᄒᆞᄂᆞᆫ

항화 령ᄐᆞᆫ에 강천ᄒᆞᆷᄌᆞᆼ지 친ᄉᆞᆼ이라

취화공산에 상상 ᄒᆞᆨ여지ᄌᆞᆼ과ᄒᆞᆫ고

항화 령ᄐᆞᆫ에 강천ᄒᆞᆷᄌᆞᆼ지 친ᄉᆞᆼ이라

향화는 평뎐갓 에기리 종지로 친히 ᄂᆞ우시물브 왓ᄂᆞᆯ라

유ᄎᆞ셩음지이 졈ᄆᆞᆫ 모직이셩음을 몸ᄌᆞ졈복ᄒᆞ시ᄆᆞᆫ

개방탕슉지별설ᄅᆞ라 개개탕슉음의별노베프를의방ᄒᆞ신ᄃᆡ라

신ᄌᆞ목ᄀᆞᆫᄂᆡᄒᆞᆨ 공브를번어슈형ᄋᆡ모

ᄃᆡ리유ᄀᆞᆫ장ᄒᆞᆫᄂᆡ 공실매어도ᄌᆞ이로

신통ᄒᆞᆫ우신 ᄌᆞ쳑을ᄅᆞ 쌋ᄆᆞᆫ젼ᄒᆞᆫ물ᄉᆞ공역몬슉형치물ᄉᆞ로 톤ᄆᆞᆯ을 에번거히아

ᄂᆡᄒᆞᆫ우시고

ᄯᅡ히ᄂᆡ로ᄆᆞ미진실ᄅᆞ쵸듸ᄂᆡ공이실ᄅᆞ토ᄀᆞᆨ나라히셩ᄲᅳ미 ᄒᆞᆫ는ᄃᆡ지나

ᄂᆡ시뎐의말슴

ᄅᆞ라

관ᄀᆞᆫ셩ᄅᆞ헴ᄂᆡᄒᆞᆼ블시칠리지과ᄀᆞ오리지셩ᄋᆡ모

졍녀죠ᄌᆞ ᄂᆡᄒᆞᆫ거뎐삼뎐셩ᄅᆞ이뎐셩음임ᄅᆞᆯ

관건쇠를 험ᄒᆞᆫ ᄇᆞᆯ시 칠리지 곡ᄋᆞ리지 성ᄋᆡ
정녀죠리 ᄒᆞᆫ거ᄃᆞᆫ 삼년성ᄋᆞᆫ이년성ᄋᆞ니ᄅᆞ

관건쇠를 이험ᄒᆞᆫ거 ᄉᆞᆯ베러시ᄃᆡ 칠리의곡과 ᄋᆞᆯ리의정셩ᄋᆡ 망ᄒᆞ모
정ᄋᆡ녀 염 허ᄒᆞᆯ비ᄃᆞᆫ 수ᄉᆞ거ᄃᆞᆫ 히삼년의 ᄅᆞᆷ니일고이년의 ᄒᆞᆯ이어렷ᄃᆞᆫ

침 고산지 ᄒᆞᆼ빅ᄒᆞᆫ ᄇᆞᆼ져난상ᄋᆡ
엄근상지ᄇᆞᆫ ᄋᆞ기ᄒᆞᆫ 제명전ᄒᆡ로

ᄒᆞᆼ산의 ᄒᆞᆼ빅을 침망ᄒᆞᆫ ᄇᆞᆼ이 ᄐᆞᆯ며ᄂᆞᆯ아ᄂᆞᆫᄃᆞᆺ ᄒᆞᆫᄃᆞᆫ
ᄀᆞᆺ의 ᄇᆞᆯ뭬 어ᄃᆞᆫᄒᆞᆫ ᄀᆞᆺ이ᄂᆞᆯᄃᆞᆫ개ᄌᆞᄂᆞᆫ ᄃᆞᆫ라

내ᄎᆡ신정지상ᄒᆞᆫ 이에새정ᄋᆞ로ᄒᆡ나아가

득치 호르는 증이라 득별이 저근 누출증에 두엇스라

전희 화양곡지방니 락이 토멸호고

취안 천중산지의니 병을 각건이라

희화시 묘칙 희시 화시형제 양곡중방 방뭐 베이시니 드열 말명보 노출 놀래 안엿고

산은 천중산에 의를 취호여 출호여 를오 각건이라

분천 염을 원지 형니 산용좌치호고

녀출궁년 운지 체니 아신구전림일라

분천 염은 를물 안을 형상 을로 들니시니 의열 출이 원전을 습할을

녀출 는 주를 을 년 호 형세를 를 희 여시니 들빗치 압 희 염 호 엿스라

응취 즉 제 득 근아이

빗이는곳 운 콜득과 습 호 아의 길 을 오

강일 즉 정 즉 완 진라

저를의 말은 강비 여온것 옷과 국문의라

응천즉재득근아ㅣ 쁘이는곳 운른득과 놉흔앗기얼 오

강일즉정주왕린라 저들의발은갑비여온갓옷과 눅문쒸로라

강관식승ㅣ 놀라남앙지부호고

중마징응ㅣ 반시목릉지육혐일라

노릐와 리리로승치를 쑥잉라음앙의 복회 복설을 받고

활과 살노처릉물라 돌아 반이우 이목릉의 육혐을 이룰라

칠칠갈지 원지춍을ㅣ 오 천원이랑녀

일진지 체체승엄ㅣ 위상중이익 공이라

칠칠갈산의 원지춍을 돌아 천원을 돌니기리머므렷고

부천문물양은 천승이를 드리시어 원천을 숩할

너츨 도주드물면 흔 형제 들를 희 여시어 날빗치 암 형염흐엿도라

은병 집에 해세 겹로엿는호 뒤호여 더욱 굿엇드라

힌 깐부장지 즘등 이며 어린 깐부장의 둥호물 더을분이리오

억 열 루 쳣지 리 관 이을 쓴 호믈과의히보는 것슬 그쳣드라

유 을 호기심언 니 광 능 제 봉지 닉 학 에오

기 할 연이 졍자 는 뉘 쳔 구곡지 상마 로

을 연히 금 허신 광 능으로 봉에 수를 과 골이오

그 할 연이 젼 혼 자는 뉘 쳔 아 홉 구비 베 뿡과 삼이로다

범 박 은 연 어 념 능 니 졍 남 일 북 쳠 곡 이오

을 연 귀 별 어 죠 모 니 오 급 쳔 타 북 응 이라

쫏 과 버 는 발 과 창 의 은 뎡 호 여 뎡 히 호 믈 비 길 을 드 릴 연 슬

구 름 과 니 는 아 홈 치 룍 을 러 나 는 것 지 연 도 을 쳔 썰 기 북 응 을 으 휘 엿 드 라

두 야 창 광 호 쥴 근 칭 성 곡 지 드 오

범박ᄒᆞᆫ 뜻이 업ᄉᆞᆷ긔 졍ᄂᆞᆷ이ᄅᆞᆯ 붉게 셤기오

ᄀᆞᆫ뎡ᄒᆞ야 ᄇᆞᄅᆞ어 죠모ᄒᆞ니 오ᄂᆞᆯ 쳔ᄒᆞ야 부ᄒᆞᆼ이라

ᄌᆞ래와 ᄇᆡᄂᆞᆫ 발ᄃᆞᆨ과 창의 울ᄯᅴᆼᄒᆞᄂᆞᆫ 졍히 ᄒᆞᆫ 복ᄇᆡ ᄀᆞᆫᄋᆞᆯ ᄃᆞ릐ᄂᆞᆫ ᄃᆞᆺ

ᄀᆞᄅᆞᆷ과 ᄂᆡᄃᆞᆫ 아ᄎᆞᆷ 죄ᄇᆡᆨ을 ᄃᆞᆯ아나ᄂᆞᆫ ᄭᅥᆺ 멋ᄒᆞ얼 쳔 ᄇᆞᆯ기 부ᄒᆞᆼ을 ᄋᆞ휘ᄂᆞᆫᄃᆞ라

ᄃᆞᆺ야 창망ᄒᆞᆫ 죵근ᄃᆡ 셩곡지ᄃᆞᆫ

ᄋᆞ졍 착막ᄒᆞᆫ 지금 ᄉᆡᆫ로 ᄌᆞ준지허ᄆᆡ로

밧라ᄃᆞᆯ이 창망ᄒᆞᆫ ᄃᆡ로브터 ᄀᆞᆨ식ᄒᆞᄂᆞᆫᄃᆞᆨ 히라ᄋᆞᆯ로ᄃᆞᆫ

ᄋᆞ졍이 ᄆᆞᆨ졍 착막ᄒᆞᆫ니 ᄀᆡ니ᄅᆞᆫ 히 ᄌᆞᆫ ᄆᆡᄆᆞᄅᆞᆺ던 ᄃᆡ ᄒᆞᆯ니ᄅᆞᄃᆞᆫᄃᆞ라

시지 ᄀᆡᆷ명ᄃᆞ지ᄃᆞᆼ에

ᄅᆡᆯᄋᆞ 월ᄉᆞᆯᄃᆞᆼ명지능이라

비로ᄉᆞ알괴라 ᄀᆞᆷᄋᆞᆯ라ᄋᆞᆯ 흠난ᄃᆞᆼ갑온ᄃᆡ

반드시 돌집과 분람기둥에 숭개잇드니라

창하우상중지제ᄒᆞᆫ 식벌화어관천이오

취오로삼축지충ᄒᆞᆫ 즉늘제어드회니라

아뤄 침하 ᄒᆞᆯ우회드리 ᄒᆞᆫ논제드를 찬시 ᄒᆞᆫ관 침ᄒᆞᆫ기에벌화 ᄒᆞᆫ올숙
라숫길라세거리 오층에이쉬식박회와 ᄂᆞᆯ겁이드회예으히논드라 비근

남수완원ᄒᆞᆫ 식안광어등니이오

북물류상ᄒᆞᆫ 증국위어감술니라

남누의 돌을 즉정ᄒᆞᆫ 안담을 ᄒᆞᆫ 트랑을 올남을 논뒤안 탄 ᄂᆞᆫ 길 적 목랑
의 말숨

북을의 장을 버을 ᄒᆞᆫ 나라위엄을 쌀숨과 우을에 머으는 드라 송적 구춘
의 말숨

홍예저 ᄒᆞᆯ니 ᄒᆞᆫ 거란 반수지저 ᄒᆞᆫ 고

멸작로비 ᄒᆞᆫ 니 의신랑노지 ᄎᆞᆨ이로라

우지에이에 ᄎᆞᆷ하시니이의 반수예 ᄒᆞᆫ 공로로는 장
이의 말숨 의전 ᄌᆞᆯ로라 ᄒᆞᆫ 여술

홍예전을 니 거친 반 수지저 고
멀작골비 을 니 의신광느지즐 이로 다

우지게이예 업하시니이믜반수 예공교론장 이희일론홈 의천즐로라호여슬
멸작져비와새 이섯론노 맛랑히랑느 절즉째 의비논거슬져리롤라

우랑위를랑즁 에 우랑위를랑훈즁에

현설르즘랑의체응 이라 힌돌이즘랑을베러긔체 응장훈롤라

리상졍님창희휠 을 니 리목힌졍히창희너로슬느훈여셩

부상셜젼일를훈즁 이라 부상의은젼날박희불근을붓롤라

우랑위를랑셔 에 우랑위를랑훈쉬에

남느의 들을 수쩡훈다 안남훈트랑으로 남을 훈, 논히야 뱃긴 긴적 못랑의 말숨

북을의 장을 버 우를 여 나라위 범을 쌀숨과 우은에 며 으는 롤라 송적 구훈 의 말숨

태정의 상과 리리 쏘라온 연석에 들네 드릐다

봄 정이 문득 신풍길로 돌아

즐라 개일 천점에 흘러 버들이 그죽 ᄒᆞᆫ 듯다

오랑위 ᄐᆞ라 남에

상설 흐온 춤 흔 ᄆᆡ 힌 상서 긔운이 춤 것 듯다

만세의 명 흔 복제 길 흔 김 ᄎᆞᆯ 돌 ᄒᆞᆫ 듯 ᄒᆞᆫ 듯

니룡이 불 주 ᄉᆞᆯ 세 홀 받드러 내 엿 ᄉᆞ 듯다

오랑위 ᄐᆞ라 흔 남에

낙양 정궐을 신 죽에 ᄎᆞᆷ 당 흔 듯다

태정 신과 리리 쏘라온 연석에 들네 드릐다

봄 정이 문득 신풍길로 돌아

즐라 개일 천점에 흘러 버들이 그죽 ᄒᆞᆫ 듯다

오랑위 ᄐᆞ라 남에

상설 흐온 춤 흔 ᄆᆡ 힌 상서 긔운이 춤 것 듯다

만세의 명 흔 복제 길 흔 김 ᄎᆞᆯ 돌 ᄒᆞᆫ 듯 ᄒᆞᆫ 듯

니룡이 불 주 ᄉᆞᆯ 세 홀 받드러 내 엿 ᄉᆞ 듯다

오랑위 ᄐᆞ라 흔 남에

낙양 정궐을 신 죽에 ᄎᆞᆷ 당 흔 듯다

응응 세 우 ᄂᆞᆫ 우 음에

반화 응 ᄌᆞ 가 성덕이라

응응 흔 ᄉᆞ 이 ᄇᆡ 들 아 ᄂᆞᆯ 믐 ᄂᆞᆯ 에

반 온 응 ᄌᆞ 가 ᄒᆞ 림 을 화답 흔 ᄃᆡ 성덕을 ᄃᆞ 렴 흔 듯다

오랑위로랑부ᄀᆞ에 낙양성궐을쳠 신즉이라

오랑위로랑호믈ᄆᆞᆨ에 낙양성궐을믈 신ᄉᆞᆨ에쳠앙호ᄃᆞ라

ᄉᆞᆼᄉᆞᆼ쳬 ᄋᆞᆨᄂᆞᆨ유음에 반화ᄉᆞᆼ국가 성덕이라

ᄉᆞᆼᄉᆞᆼ호ᄂᆞᆫ비ᄃᆞᆯ라ᄂᆞᆯᄆᆞᆷᄂᆞᆫᄃᆞᆯ에 반ᄋᆞᆫᄉᆞᆼᄉᆞ드릐ᄅᆞᆯ화답호ᄋᆞᆨ 성덕을ᄃᆞ릐호ᄂᆞᆫᄃᆞ라

오랑위로랑상에 화봉ᄎᆞᆫ선ᄀᆞ인 선장이라

오랑위로랑호ᄆᆞᆫᄃᆞ 화산의ᄇᆞᆨ리의봄비ᄌᆞ신ᄌᆞᆫ의잠ᄆᆞᆯ인ᄃᆞᆫ호ᄋᆞᆺᄃᆞ라

ᄌᆞᆼᄅᆞᆼ츄ᄅᆞ 쳔향리ᄒᆞᆫ니

ᄌᆞᆼᄅᆞᆼ이ᄇᆞᄆᆞ혀니ᄃᆞᆯ때 하ᄃᆞᆫ 향기ᄋᆞᆨ

지시ᄆᆞᆫ거져믈 챵이라

ᄇᆞᆯ오라이ᄉᆞᆯᄆᆞᆷᄉᆞᆯ위예믈 챵ᄋᆞᆨᄅᆞᆯ 갑ᄉᆞᆺᄃᆞ라

오랑위로랑호ᄆᆞᆫ에

오랑위로랑호ᄆᆞᆫ앙ᄅᆞᆫ

ᄀᆞᆷ츄ᄒᆞᆫ 하ᄉᆞᆨᄃᆞᆯᄅᆞᆫ ᄇᆞᆷᄇᆞᆺᄀᆞᆯ쳬호ᄃᆞ라

한남ᄉᆞ녀낙ᄉᆞᆼ졍ᄒᆞᆫ니

한ᄀᆞᆷ에ᄉᆞᆨ예 ᄉᆞᆼ쳥믈ᄉᆞᆯᄌᆞ호ᄃᆞ

이르지르긍오르긍이아라 　　흔눅츠즈긍의이아시면깨에을보드라

북원상량지흑에 쌔앜미근흔고

쌔앜을더욱츠즐

업뒤며원흔흡눅상량흔흑에

누린드기욱티앙흘터라

누린블건이라

원슉유강노지상흔 저전연빅눅지은이오

리회영흔즐일지선니 거즐광슉즐지흐기로다

원슉난으의감노리는상세이상일템북죽이더욱지노은을봉묘기기돌리근

리와묘이나은요을빗상선을까죽갈츠즐받것 의빗나옷선알름다오을비은돌라

이시업선일은거여 천구남브눅행갈시보 흔니쒀업의비록행

갈이이시나 노근츠즐흔써다산흔전묘지묘이라 형형시의

양환위로박으리시으희쇠흔더이에나은려근뒷체으

원수님의 감도리는 상세이상 일행 북측이 당지 도운을 봉사하기 위하여
귀화 온이날로부터 빗상설들까지 중간 초빗상방의 빗나옹신 알림과 같이 비는 바

이십칠일 유여천 남북 형각시부 호니 취염의 비록 행
각이 이시나 노근 출 호여 다만 호 접집이라 형 형시니
앙환 뭐로 막으려 시의 허 소 호 더니 에 나 려 로 취 체 우
기로 즉 영 호 여 넷 집 으로 헐 로 즈 허 힌 간 갈 로 는 려 새 로 지
우 남 형 각 은 오 광 심 오 간 의 좌 우 온 들 을 쓰 며 형
형 시 니 각 정 원 이 는 화 눅 컴 호 게 호 로 즈 마 리 로 쓰 심 간
을 니 어 중 형 각 의 부 치 게 호 며 즈 집 천 변 은 남 으 로 호
여 정 화 문 밧 빅 여 간 빈 허 히 즈 로 이 러 니 인 호 여 승 장
을 들 니 시 며 북 형 각 은 중 앙 을 밧 라 좌 우 간 힌 뭡

흐로박아지은집이니외칭각근와유벼슬을안올나십
이간이오중힝각십삼간은벳집을드리고숙호시
니이르쏘흔외칭의출흔새오북편칙간으로은빈
희실이나고밧지뎡니힌뎡칠간을남향호여체위의
졍니만을여거실치호근외별근를써거중힝각밧
그로들너박은뎨로리거호여칠월초에질역호
니라
삼십뎜일쎠즈르기화초즛 논누 일은니쳐장힌북을이빅보에잇
근즈이쳐이치 들재 치청 쏜이시뎨는안린빅즈즉이청밧그로나흔
기린이십수쳑이오외벋너빈이십일쳑이라칠을안히
하츙으로노리는린빅을조중뎨들로는흥니그나마제로는븍

삼십일년 셔르기화 논누 일으기 장듄부으로이 빅보에잇
근수이 셔이치 들제 치청 뽀이시며 누아리 빅근즉이 청밧고로나온

기린이십수철이오 외뿐너뷘이십일철이라 칼을안희
하층으로노리는리 빅으로층뎨들로드흐그나아제르는부
중르기와로더라

늑월르초수일즉젼 하고를인흔와감중광상이하
로등장엇지 호괘흘서베를직셔영보노려와중장리
의셔감괘흔다감중광상일월르청이원감중십원
정부감관늑월괘장출십수원셔리십칠인은각반
일르기 칭일르기 위여십개오각석장인으빅즉십오명은
각반일르기 칭일르기 위여이개니합반미수철칠두오승

라각종가쥰삼십분늑냥삼돈은의탕근차하ᄒᆞᆯ라

ᄎᆞᆨ주일즉쥰 한ᄃᆞᆯᄒᆞᆫ뎨ᄅᆞᆯ오샤ᄃᆡ보ᄂᆡ고ᄇᆞᆯ빙발장을발ᄅᆞ

마ᄃᆞᆯ녀을녀보내ᄆᆡ일이쥰의엽ᄉᆞᆨ만만히ᄒᆞᆫ뒤

라청ᄒᆞᆨᄌᆞᆫᄉᆞᆫ흑맛강히쳐보ᄂᆡ이ᄂᆡ실거ᄉᆡᆼ빌ᄉᆞᆨ의

중ᄉᆞᄒᆞᆫ쥰ᄂᆡ로쥐ᄅᆞᆯ니근거형ᄒᆞᆯ란명이비록이셔시

나ᄉᆞ쉐ᄃᆞ리로벅혜아리ᄇᆡᆫ감히안ᄇᆞᆫ히ᄂᆞᆨ슥의일을

힝치못ᄒᆞᆯ거시니청ᄒᆞᆨ의ᄇᆡ여러가지장제와ᄉᆞᆯ쳐ᄇᆞᆯ등

거힝ᄒᆞᆯ로일을ᄎᆡᄅᆞ의가ᄃᆞᆯ규례대로관관을벅ᄅᆡ신

ᄒᆞᆫ뒤힝ᄒᆞᆫ거ᄉᆞ쥼ᄂᆞᆨ슈거힝ᄒᆞᆫ거ᄉᆞ삼ᄃᆞᆯ감화용동광츄의이

믜힝ᄒᆞᆫ쥰ᄇᆡᄅᆞᆯᄉᆞ셔히믜러ᄒᆞᆫ게ᄒᆞᆯ라

시ᄇᆞᄉᆞ일헝ᄅᆞᆯ제ᄉᆞᆨ의로고표ᄒᆞᆨ힝라ᄅᆞᆯᄉᆞᆯᄉᆞᆨᄂᆞ니의담

거행홀일을제도의가즁규례대로관원을뽑힌신
호며행홀거슬감독규칙거행홀거슬삼도감확용의이
의힝홀젼데를셔히무러홀게홀라
시보수일헝즈제쥭의즐고표허힝라를즐슈느니의담
근을보니느흘뛰의힝로슈벋츅복인이치명을일
놈벅 관부홀오시근못히를오사뒤고본수를승수홀진
리으근을쳔구냅홀기예말니아므미라젼의이일느칙
교홀미엇더홀관리일만듯신해방젼홀느츅을셩
각거안니홀고박속홀는배셩화로둑즁홀는다의
셔급홀느를인홀며므론교즐홀고홀이음의부터안니
홀고위령에겁홀야오직죄뗀홀기만다힝이넉이

나의 러시아 기록 만리 안에 흔한 의학의 설비 낫부족인 이 이실로
을으로 리나 만일 그러 그로 치며 부리 물의 는 흘릴 권 지 실로 는
로 는 바 박 래 와 칼 히 리 를 미 업 스 니 이 으로 썻 는 지 의 정 영 히 나 로
물 전 분 리 미 고 리 가 비 영 분 리 안 나 흐 나 슈 되 다 른 일 을 을 의 는 흔 여
흔 여 담 죄 를 나 는 수 목 를 주 간 흔 게 흔 여 스 더 나 흔 일 를 드 일 을 의
일 만 나 만 흘 를 흔 나 위 비 (천 혁 맛 지 단 말 씀) 흔 뜻 이 과 연 어 린 인 스 프 로 러 나
몽 곤 황 혁 (슈 영 영) 의 행 사 흔 는 일 에 비 저 는 오 히 려 식 공 지 찬 로 (가 벨 연 은 일 어 린 말 씀)
의 부 칠 거 시 로 된 이 미 드 를 흔 는 흔 는 가 희 흔 를 로 치 고 국 천 는 흔
를 임 라 흔 리 옷 흔 를 거 시 니 종 니 대 신 을 로 흔 여 남 지 실 는 여 염 금 흔 리 라

시 비 천 로 의 로 봉 는 를 름 주 흔 니 봉 는 음 봉 화 혁 는 는 리 라 청

원 로 행 행 시 누 구 초 시 대 말 의 으 는 천 (주 적 칼 지 흔 는 브 라 봉 된 말 씀) 와

의부칠거시로되이믜드러는뜻은가히 혼들로 치고국천왕이
늘임타 하지못하리시니조상대신으로 향화남지실이라 염념히

시부치를 봉은 힐르즈 혼다 봉은 문봉화 혀 논론리라 정
원월 힝힝시 뉴슉 조심태 알의 오리 첫 이 드릭 칼지 혼근
보라봉 와 봉슉는이란방의 긴오를 혼은일이라 본부 한님으로경지더
의잇수와 힝경수 혜더욱 즉벌로 혼은리 반드와 국 눈에 혼
조정 즙으로 브을리 어복으로 스등을 성각 혼으로 때 만 스
우 혼은리라 이제 성 여이 즌 혜로일 등기 를 르는 등 응 브 르 를 록
에이믜 좌 슉 를 베르은 즉이 때 를 이 최 봉리 를 찬 성 설 혼
오이 즙 뮈 리 오 다 중 장 리 즉 봉 에 근 장 즙 으 로 즌 이 버 다 불 라 으 때
통 창 혼 은 디 라 고 익 희 혼 봉 슉 를 베 퍼 중 으 로 즉 느 봉 화 를

응하여 몸소 천하로 하여금 봉화를 올리게 하였는데 한 번도 오는 자가 없었다. 이윽고 견융이 정말로 쳐들어오니 봉화를 올리고 군사를 징발하였으나 제후들은 모두 달려왔다. 견융을 격파한 뒤에 포사를 데리고 돌아왔다. 포사는 웃음을 좋아하지 않았다. 유왕은 포사를 기쁘게 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썼으나 포사는 웃지 않았다. 유왕은 포사가 웃는 것을 보고 싶어 봉화를 올리고 북을 쳐서 제후들을 불러들였다. 제후들은 모두 이르렀으나 적이 없는 것을 알고 욕을 당했다고 생각하였다. 포사는 이 때문에 크게 웃었다. 유왕은 포사를 기쁘게 하려고 여러 번 봉화를 올렸다. 그 후 제후들은 다시 믿지 않았다. 신후는 이미 폐위되었고 태자 의구는 신후의 아버지 신후에게 의탁하였다. 신후는 제후들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유왕을 공격하였다. 유왕은 봉화를 올리고 북을 쳐서 제후들을 불러들였으나

호오든봉든 창설호오미 수변이정치안니호오배감히알
외노이라 상왈의유지호근절숙배천사입호여일체로
인츌르호게호라이호중장은즉봉이오히려형중의저바
로비최리오호는로허물음저일즉 군성으로 형중을
안호여숨히접근호니는 제르는성밧리내일게봇을 최성과
그치호리기로이심천사이오너빈오심칠천사이오천르구으등과
뻐르구국심의등이등호여숨희이심묘천사이오너번을로라
숫번씩거등을지응떼일등은숨희수천이오너븨칠
천이오으로봉화로라숫을느러세으로수이마다네천명을
베르며현안들을뜰엇는리라숫들이갑갑숨희십
일천이니숙으앙즈으로안된너로근으로히거두천네천명

우흐로 눅천이더 놉흐며 쏘 두루 마다 아리로 삼천일존의
화불디르는 구멍을 내여 우흐로 통하게 하시고 브를 하는 법은
이앙 전과 마찬가지 남쪽 혼두의 해호나식으로 하시고 청산국
뇨봉화와 흥현는 히로봉화를 흐므거 응하고 나머지 두
은 상히 하는 일법수니만 일변방의 일이 이시면 즉시 하
는 법이라 돈피 제이층브터 제스층 지또는 벽을 삼면을
로 쩍거 뽀니층마다 너비 일척스촌이오 높히 삼척삼촌이오
삼면의 등안 뻘여 돌을 쓸어 시며 좌우편의 벽으로 또층
데를 무어 해길을 통하게 하며 또 편층데 숫히 법으로 뽀 집
을 지되 지와를 으로 하시니 여 천 숙의 갓 흔 간이 이 좌 전 은 은 돌
을 쓱 써 장 출이 이게 하며 옥 천 은 널 흐 을 꾸 라 거 제 를 금 흐

삼면의 등산 병풍을 둘러 시며 좌우편의 백으로 높은 능
떼를 무어 화길을 등하게 이 백성들이 백일 봉지
을 지고 지와를 으로 여묘 시니 여러 옥의 갖 흙 간이 그 좌 절은 온 돌
을 옥 백 장 출이 있게 하였 옥 현은 널 흙을 찾 라 게 데 를 름 론
게 하니 정 안 하 로 드 러 은 백 트 국 은 남 북 전 드 지 브 의 스 치 니
그 리 시 십 국 천 에 조 중 조 이 형 내 당 을 봉 은 천 백 을 로 드 집 법
승 이 에 백 을 로 받 은 감 이 기 리 시 십 리 를 천 국 조 이 라 당 등 승
여 전 은 등 비 분 을 베 천 시 니 봉 스 로 브 기 에 브 로 전 은 성 을 브
지 게 국 로 은 로 승 비 백 트 국 술 은 체 앙 이 죽 히 정 고 승 근 전 은 승
여 라 로 리 의 조 국 이 을 더 허 비 승 옵 스 은 니 라 봉 리 로 의 은 승
여 은 등 국 에 로 브 은 로 드 을 니 라 봉 현 은 리 현 봉 을 전 승 은 간

봉은본북쪽으로삼십니쯤봉산우희봉화를안치고장
졸의숙직을도집을보새로세우니라
십팔일에암쑤중에일우니이쓸은처장원남으로십
숩에이시니칠갈산처현산숙수의청수빈을인호여
쓸이북으로향호여시니밧글브터보매쓸인느즐
을안되엇호드니라박으로중에를봇근쓸박은철엽을
니버히니너를기제우쓸을통호를만호근중에우희너의
로정여당을베프며쓸안희삼벋을으산천으로쏩히봇
은중북현의쓸느즐에를느하청우들을으로게호니라

개쓸이의청의의니시매청의니락으를쓸느우쓸봇근시
승여쓸길을통호게호니라

로 정성스럽게 베푸셨으니 한 번 삼번으로 수십 번을 접하여 보
은 중복된 의를 느끼게 하셨으니 개
개 불의의 허리의 시체성의 니탁을 들어 보시
옵소서 길을 통하게 하니 수많은 다른 암살과 도니라
이십수일 천성승정 보드천성니수정의라
일본의 의로니정보을 새보라 저는 후드어께의 베드
갈갈이 근정하로 하로 하는 후속의 비록 일등일정
이라도 반일 더위 싹히는 레이시 변정이 반강히 등감을
변치 못하리니 일본 부처 시로 하여 천정을 하
중하니장으로 등천의 보급하로 항으로 산일 백천과 익
원산이 빈천보을 쏟하 중하 하니 등 보하는 장관과 장

로와 빗장과 숙등 쳐의 분급을 하라 정의로에 내 방출서
랑 일 천냥 육 화 능 국 일 산으로 천냥 진사 이 원 산으로 천냥 청신원
십 환 광 제 환 이 십 환 제 등 란 으 십 냥 청으로 수급 호노라
○ 이 십 냥으로 일 청 백 로 천 냥 니 우 정 별 란 으로 천 이 십 냥 수 일 로 술
시에 청 천 냥 으로 은 천 냥 일 로 와 빗 척 서 란 으로 천 청 과 향
유 산 일 백 천 냥 과 익 원 산 이 백 천 냥 을 제 본 수 래 장 박 로
청 이 떠 봉 호 와 천 호 으로 때 신 이 랑 일 로 시 에 청 백 호 의 잇
수 와 지 수 호 응 냥 로 삼 가 천 냥 보 수 의 로 의 니 호 와 반
로 방 로 들 기 의 니 로 리 아 니 케 호 으로 써 향 유 산 일 백 천 냥 과
익 원 산 일 로 백 칠 십 냥 칠 천 냥 으 로 은 각 쳐 감 증 칠 원 감

수화지수 흉흉브르삼가 전명보수의르를의뢰호와반
드시새벽과저녁서로한째의흉흉브르명의위

로병들기의니르리안녕케흐흐며 항우산일빅쳠과
익원산일빅칠십칠칠쳠은각쳑감증칠원감
관늑원쾌장늑십스원증장즉쓱십스명의반
즙흐읍근쳑쳑간이쳔삼빅구십칠증은각스증장
쓰즌일쳔구빅삼십팀칠명의분등을와반즙흐읍
근나물이쳔늑빅십칠증은안직머물너즉어일즉의라
시반즙흐로려흐로써신의고에느리오신바앞믈르
쓰흔지수흐은연유안으로별갈흐흐이라
칠월르삼일흐이르니 누표 일으니봉론남으로일빅

오보에이셔 중성으로 들을재 로류라 치성이성 반으로 배여나
가미 십분주척이오니 비십분칠분척이니 그윽히 심면으로 강의
각각 특장한 을 쓰랴는데 광한히 간수를 세우매 제리
북로로 와 잠간 길나수면을 막리하니 숭은 늬면 을 간
은 청관을 베르리하니 숭여리만 쓰 중제로는 하 올게
숭은 심트로 란 청숭 떠 냉상로 회숭니라

초칠일 전 왈 성역을 올이날이 더욱 므로 벗이 직
정지 숭나근와 각되란 말숨 숭미 금삭니 삭수이 예이실리니이
께로 청의 소임을 성숙에 맛기되 옷을 지라 신체 중제

수를 숭여 남인 지 머므리 인 참숭을 의 을 중니 라 신 을 숭

여금 알게 숭리라

정지 승니 근원(라되란 말씀) 승이 금삭니 삭수이 예이시리니이
때로 청의 스임을 성수에 맛지지 못할지라 신체 중에

스를 승여 금안지 머므러 인찰 승을 일으를 중니 대신으로 승
여금 알게 하라
혼주 일을 남을로 (화포ㅊ 느누) 일으니 셔남안 브문 허으로 남젼 일백
보의 이셔 그체로는 백으로 숙을 브게 봇을 셔 세 층에 러
근스를 금 츨게 할 미 북 중을 로 와 라로 미 업 러 라 ○
셔북 각 뉘이 날을 일으니 화 셔문 남을 로 일백
스십 숙 보에 씩 히 젼 숙 출로 이라 오랑스 간으로
제 리 로 장을 로 승니 중 북 젼 삼 간은 헉거 청 관을
걸로 정 난 간으 히 관 문을 베르 며 셔남 젼 출 간은 나

쓰는 제를 노하 구슬으로 오르게 하고 큰 확은 삼을 보내라
상의 드릴 회를 너이 누 히 비록 갈은 승개 업스나 서천 연의
구 버지 근수 사진 진 실을 걸 위 할 떤 을 랑 을 형 세
잇 러 라

초 십 일 은 중 일 을 로 록 일 으 너 이 은 등 성 의 첫 재 로 은
히 라 창 룡 문 남 으 로 일 빅 칠 십 보 에 이 시 니 는 잇
히 치 성 이 밧 으 로 나 가 미 이 십 수 척 이 오 너 븐 이 십 척
에 현 안 은 나 은 을 쓰 큐 근 수 은 삼 간 을 세 워 이 간 은 청
란 을 칠 근 보 면 은 간 은 나 으 은 데 로 베 르 떠 수 떤 을

빅 리 안 니 은 근 다 만 삼 면 에 당 에 등 안 벨 보 수 슬 으 로 오 시 게 개
으 로 재 로 록 와 더 브 러 체 적 은 간 지 러 라

예현안흐나흐글쓰큐근수흔십그간을체외이간은청
란을설근뇌뻔흔간은나스층떼를뻬르떠수떤을를

딱디안녀흐근두만삼면떠당에등안열보스를쓰을어시개개
글재조록와더브러체피흐간지러라
십일일쓰에정신수리지흐니이현이월의외수됴심
태의게 천년흥오사천정체피이의명흐근누로와
치뒀비이쓰흔다즈레로쳐서흐여시나숙한의예일의
논길리를첨복흐며길일을를현여은천정신쓸를
체온흑께로항을노리외제스를형흔여뻐만체에바히
러옷흘리되의현안흐을분란죽신일이라화흐여으리
를수흐며으리를복흐여화정의일흠과신리이서로아

즉시 회답하라 (관후화란 말씀) 하는 것과 같게 하였으니 그 비는 거슬러 마칠 것이다 (화봉인이 청인에게 청하는 말씀) 정이 그와 같을 뿐 아니라 더욱 더욱 친근함을 정영하라 하였으니 이에 너를 가르쳐 일러 산욕으로 병이 남아 (일흠바회) 우회비로소 더욱 정하니 너 화를 향이라 이날은 천근의 제일 흉하여 관은 죽성등 근기죽을 천근 관점대 죽은 천부 근기되 한이오 찬 잔은 천부 근기남 숙이오 알 잔은 천 현감 근 메거라 근죽 물에 르오리

육가정 원년 체는 병진 칠월 갑진 삭이십일 일

갑인에 절등장 근죽 성등 근김 죽는 감히 화성

성신에 보리이고 응응묘 니

위므로지거 물에 큰거시되매

유가정 원년 세 차 병진 칠월 감진 삭 이십일 일

감인에 천조 장군 독 성등 군 김 흥 고 감 히 확 성

성신에 빌 이고 등 을 읍 고

위 므로 지 거 　 물에 큰 거시 되 매

미 신 브로 스 　 신령이 가 ᄋᆞ마 거 ᄋᆞ니 업 도다

성 ᄋᆞ로 대 읍 　 대 읍 에 성 을 빗 니

실 간 곤 유 　 실 ᄂᆞ 히 버 리 를 갈 예 호 연 도 다

왕 국 번 원 　 왕 국 의 을 과 담 이 오

즈 뎨 병 응 　 즈 뎨 의 리 ᄋᆞ 근 덤 희 미 로 다

츅 ᄉᆞ 지 초 　 뎌 거 성 빗 던 취 엄 의

원 구 명 공 　 이 예 성 명 ᄒᆞ 고 공 을 ᄉᆞ 기 ᄒᆞ 도 다

상천선지 집터를선천의발의복수

엄림으기림 엄엄이그늘을서미엇드라

성인의귀 성인이의로늘의책무서수

명인시음 불리은제술들이에음행을시리로라

슈아복아 으리를수을떠으리를복을수

만억년과 만억년을들을허리로라

죠치진걸 비를정을드즈흐를늘위떠

이지명우 버기리절안을시을보라놀이라

삼가희성라례체서금으로복이에불이철을물베르을비

니거의음행을시리로라 천주응도천정
홍원섭찬

십이일 전의를궁원의광숫의당기를르는을들리라의천곤유

이거명이기 (뒤기리젼안흥시골보학동이라)

삼가 희성과 례폐 쇼금으로써 이에 브리오니 쳔흥물베프옵ᄂᆞ

니거의흠향흥시리로다 (쳑응도쳥 홍원섭찬)

시뎡이일 젼ᄆᆞᆯ공ᄒᆞ이광츳의등기ᄅᆞᆯ근흘리라 희셔곤슈

의장졔ᄅᆞᆯ보매 ᄲᅳ흔ᄉᆞᄆᆞᆷ이브리모ᄉᆞᄅᆞᆯ 거시오 쳑근춘의

쉭으거슬 (쳑근혀믈 이란말숨) 맛당히 ᄋᆞᆼ셔흘배니의젼흘ᄒᆞ찰임흘ᄅᆞᆯ

ᄯᅳᆺ으ᄅᆞᆯ중니ᄀᆡ신으로흔ᄒᆞ고금화셩ᄒᆞᆫ ᄉᆞᆷ의게분부흔ᄅᆞ

십십일ᄀᆞ젼 하ᄀᆞᆯ인흔ᄒᆞ니영ᄉᆞᄒᆞᆫ중니에셩ᄒᆞᆫ이ᄉᆞᆫ

기에니ᄅᆞ러시니장ᄉᆞᄃᆞᆼ의쳐ᄉᆞᆷ미ᄅᆞᆯ의ᄒᆞᆼ근로ᄉᆞᄒᆞ젼이ᄒᆞ셔

넉년이마련흔ᄒᆞᆼᄒᆞ차하흔ᄅᆞᆫ젼명이ᄅᆞ 원ᄉᆞ봉심흔ᄒᆞ라ᄂᆞ

려가ᄂᆞ고ᄀᆡᆨ깐ᄒᆞᆼ이분ᄀᆡᆨ흘거시ᄂᆞ고날ᄅᆞᆫ령흔게흔라

십오일별군직김희봉 명이병등장은의서감궤등이니
감등으원정감관수원은정부책장등국십삼원정부서리
십구인은각반일직탕일직위어삼미은각식당장칠
백칠명은근일천일백등국십삼명은각반일직탕일
직위어미미로분궤등이니함반미십삼석삼승라를좋
각원은수십등낭수천삼분은외탕으로차하훌라
십등국일등로등일이니이는화로숫는히라봉돈북으로이
백이십구보의이십니고체로는라로는로와그더라
십구일등북궁심등일이니노리서천으로등국십북에성

이전국이등는곳이라노탁이히오서첨안히이서고제되므
등라제쥬즈음에들간은리인는정돈을약간으방등여

빅이십구보의이시니그제르는라른르와그러라

십부일른동북공심동일으로는러서젼으로는국심부에셩

이젼국이호는숫이라는탁이히오셔쳠안희이셧그제되흐

동라제류즈음에들가온즤인는졍돈을앗간즈방흐여

빅으로긍글게뽀니눕희십칠쳑오촌이오에금이일빅

이십이쳑이오빅즉듯게는수쳑이니속을르라가며뷔

워시되그가온즤쓸등을게빅으로뽀을며그에금은칠십

칠쳑이라반겻벽즉이졍으로르너속뷘가온즤실은뷔

러안는글을것으로보기에아되오흘너라반겻빅즉동

젼의흥예로져근글을내여그속을들케흐며문에들매

부젼으로온들을인즈라장줄이닉희게흐는의빅

축두수이너비는드라가며다수쳑으촌이니개괄두증
을베러재리삼증이리게흔근개괄으흰삼믈희를
두것겁게다아낙리르치증아릴즈증은습희칠쳑삼
촌이으으증은늑쳑으촌이라이는라즐수를감즈는
배으증마리백축에증안을크근으지게도라가며쓸을니
점증여부리기를췌흠이며하증으로브터백증데를
블바돈뒤이마씬지으로매앙장의주븍즈즈증여속의
백축을안근르라가니절느상증에안니르지쓰흔즈리라
금우흔두간지믐을세워삼믈로라흰쳥흔냉상에즈희흔며
쳠하반스로정여당으들글니습희으쳑의사현르라즐원
을법리로쓸글어시니이는제르처복당시믐은을전흔여흔나

첨하 밧그로 정요당을 들어가 옵희의 오천의 상현을 라 출현

을 법문을 들어시니 이 때 석부등 시 듬 을 천 하 여 수

을 모지근 하나 을 등 금 현 그 의 방 원 을 법 문 을 근 근 으 로

두 번 을 라 가 온 리 쌀 회 처 이 시 문 태 숙 의 동 정 을 상 음 로

을 떠 지 음 을 이 간 으 로 하 는 일 원 을 음 하 을 로 하 근 경 안 을 도

라 가 떠 들 으 는 쁘 의 북 신 을 리 오 미 라 체 의 미 다 를 때

보 는 재 고 지 라 하 을 취 하 여 서 을 전 라 하 여 원 은 남 네 이 전 을

위 하 여 브 러 귀 정 하 라 오 는 만 으 며 욱 린 히 일 을 음 하 여 솔 라

성 이 라 브 르 니 고 으 앙 을 솔 라 숙 의 비 기 미 라 욱 식 하 은 순 전 이 가

히우읍근간일믈형을채등떠제주황(둘리의알 누른숙)의갓감라등
믄흑가을너라상중에으뜬습기근절중야으든딘라근
아원이시니번니부라근뒤을술리을위등뼈이딘를믁으
니라
이십일을화양느일을으니북간질작으로남천드간은청관
을걸을느간을글뼈난간으희심뱐은괜으근이으북졌은
분함이라분함빗리일쳐치른손을느을와수간을통
등여라방천을걸을뼈간청은으트로보근냉상에으회을니
이집이청에갂뉘질샌아뎌느리로간회뼝승이라니를
리라쓰남안믐근을나매용으로즙게나오라아느허희잠간너
로근산이진흔으의습기드절중으수안제중화을등믐거

복이

장규모의 병한 [illegible] 거작 [illegible] 복의

업의 이뉴일 흠없이 나이 의의 근청 흔 [illegible] 화 앙으로

와 인민의 상하 왕 [illegible] 호 물 [illegible] 년 히 [illegible] 첨 [illegible] 흘 너 라 취

로 [illegible] 근 남 [illegible] 을 래 로 수 십 시 십 니 를 [illegible] 츠 서 려 시 니 관 개

의 장 [illegible] 와 감 [illegible] 을 [illegible] 여 삼 [illegible] 년 간 아 [illegible] 들 라 의 희 [illegible] 츠 흔

리 라 셨 남 아 [illegible] 근 을 나 매 용 [illegible] 로 즘 게 나 오 리 가 누 [illegible] 희 잠 [illegible] 간 너

른 산 이 진 [illegible] 흐 [illegible] 의 [illegible] 즘 기 [illegible] 누 [illegible] 절 [illegible] 흐 [illegible] 그 안 제 [illegible] 통 화 [illegible] 흐 [illegible] 믄 거

흥 [illegible] 면 서 방 천 [illegible] 을 [illegible] 서 [illegible] 러 [illegible] 간 [illegible] 첨 [illegible] 은 [illegible] 오 [illegible] 트 [illegible] 로 [illegible] 뽀 [illegible] 는 [illegible] 낭 상 에 [illegible] 트 [illegible] 회 [illegible] 흐 [illegible] 니

이 지 [illegible] 이 [illegible] 성 에 [illegible] 갓 [illegible] 니 [illegible] 적 [illegible] 른 [illegible] 뿐 [illegible] 아 [illegible] 니 [illegible] 누 [illegible] 천 [illegible] 로 [illegible] 가 [illegible] 흥 [illegible] 평 [illegible] 흥 [illegible] 이 [illegible] 라 [illegible] 니 [illegible] 를

창름근환어동으니 성상으로

업듸여뻐흥얍는니

규모를병한그리우에장케홈이라 매양장흔바을이오

름근환흔물동우됴리과에통창케흔니 성상의넙흘것로다

보장목으고

보장의근심이업고

치정유상으로다

치정은형상이인즈다

원릭악화성증등지졔는

금유 성인심원지 유다상

이러툿흔화성의 습근등흔졔즈는

금정흔야성각흔오 성인의심원흔흘션으웨상다

밀이 침원니흥 충시즈동탕슉이오

금졔흐령니흥 형젼이시관방일로다

밀이 침원니흥시즈동탕쑥이오

궁졔호령니흔형젼이시관방일노다

침원의밀이흔니흥시온즁을보시관말숩는즈로탕쑥읍라로치흔오시근

흔와령을드린뜨졔어흔니형젼이인흔야이관방이로다

스이창건셩궐노다흔야

위지비식산쳔믈식이라

빅셩궐라누리를창건흔야

산쳔믈식을비식흔엿도다

비쥬낙읍니흔졔모벌어즁즈심드리

약한패궁ᄒᆞ니 흉흉ᄒᆞᆫ어졍월이월라

즉뻑낙읍의비ᄒᆞᆫ바시ᄉᆡ체ᄇᆞᄂᆞᆫ중ᄃᆞ와심ᄃᆞ의셔ᄌᆞ별ᄒᆞᆫ고

한뻑패궁과조등ᄒᆞ 흉흉문ᄒᆡ앙졍월라이월의흐시ᄂᆞᄃᆞ라

호거룡반지증거셰오

어시 휘비쵸현지싱휘광으로라

범이걸안즈버룡이서린ᄃᆞᆺᄒᆞᆫ긔셰를머ᄒᆞᆫ엿ᄂᆞᆫ

이에

졍이ᄂᆞᆯᄂᆞᆫ새ᄇᆞᆫᄒᆞᆫᄃᆞᆺᄒᆞᆫᄇᆡ치나ᄂᆞᆫᄃᆞ라

긔비현간ᄒᆞᆫ악ᄒᆞ귀ᄂᆞᆫ어금일이오

신ᄉᆞ귀츅ᄒᆞᆫ근럴정어삼긔라

ᄯᅡ히금초근하ᄂᆞᆯ이앗기시니이ᄌᆡ날의기ᄃᆞ리미잇ᄂᆞᆫᄃᆞᆺᄒᆞᆫ

신명이슈운흐고귀신이ᄯᅡᆨ근ᄃᆞᆺ흐야그일을ᄂᆞᆯ세히의근흐엿도라

쉐이 늘은 새벽 한 드릿 한 빗치 나는도라

기비 현 간 ᄒᆞᆫ 니 앗 유 기 러 어 슴 일 이
ᄋᆞ

신 수 귀 축 ᄒᆞᆫ 니 근 겁 설 어 삼 거 라

따히 금 조 근 하 늘 이 앗 기 시 니 이 제 날 의 기 도 리 미 잇 드 릿 ᄒᆞᆫ 근

신 명 이 슈 운 ᄒᆞᆫ 고 귀 신 이 깍 근 릿 ᄒᆞ 그 일 을 알 세 히 의 근 ᄒᆞᆫ 뜻 도 라

버 악 서 딘 여 지 와 서 딘 섯 장 에 남 을 지 각 라

이 러 릿 ᄒᆞᆫ

남 유 근 처 의 남 유 남 젼 ᄅᆞ 히 ᄂᆞᆸ 흔 곳 의
란 말 슴

부 근 첨 을 일 ᄂᆞ ᄒᆞᆫ 가 진 ᄅᆞᆯ 근 범 위 오

화 동 상 궁 ᄂᆞ ᄒᆞᆫ 젼 슈 일 뻔 형 승 이
라

희 성 첨 이 날 의 비 최 여 시 니 갓 히 여 ᄌᆞᆸ 은 의 범 위 ᄅᆞᆯ 보 왐 즉 ᄒᆞᆫ 은

그 림 들 뵈 궁 등 의 ᄂᆞ 라 시 니 온 젼 이 ᄒᆞᆫ 뻔 형 승 으 로 슈 운 ᄒᆞᆫ 앗 도 라

화 산 지 가 지 즁 을 ᄂᆞ ᄒᆞᆫ 창 쳬 이 ᄇᆞ 첨 이
모

뉘 천지야 식미망ᄒᆞᆫ 니 ᄀᆞᆼ연만 ᄎᆞᆨ 이로다

화산의 아름다온 긔운이 ᄎᆞᆼ을ᄒᆞ니 창체보ᄃᆞ 더ᄃᆞ렷고

뉘 천의 ᄃᆞᆯ빗치 아득ᄒᆞᆫ 니 ᄎᆞᆼ연이 ᄂᆞᆫ의 ᄃᆞᆨᄒᆞᆫ 뜻도다

홍유 성죠 구오블ᄂᆞᆨ에 오

천일창신이 라

구오북의 만ᄂᆞᆫ 뉵이시오

넙이 성각ᄒᆞᆫ 오니 성명ᄒᆞᆫ 옷ᄂᆞᆫ 죠정이

천일운의 청ᄋᆞᆫ 때로다

상제 하반 니ᄒᆞᆫ 성명을 쳐지 위 성이 오

ᄌᆞᆼ점 셕피 니ᄒᆞᆫ 유궁 ᄐᆡᆨ지 난명이 샷 다

우ᄒᆞᆫ로 다 ᄒᆞᆫ 근 만ᄃᆡ로 셔려 신 성명을 ᄃᆞᆨ 문을 ᄃᆞᆯ니 ᄅᆞᆫ 말ᄉᆞᆷ 의 성ᄒᆞᆫ 비오

ᄌᆞᆼ으로 ᄌᆞᆺ근 쳐ᄒᆞᆯ로 ᄆᆞᆷ 혀 시니 ᄒᆞᆫ 유궁 ᄐᆡᆨ ᄃᆞᆨᄐᆡᆨ을 니 이일ᄒᆞᆷ 키여 렴ᄃᆞ라

법이상각 한은니 성명한은쵸정이 천일운의성은때로다

상제하반은니성명을쳐지위성이오
중점선피은니근유궁덕지난명이샷

우흐로각할근만릐로시려시니성명물쳐문물을니의성한닐
중을젓근쳐흐로냅혀시니근유궁덕덕을니 이일홈키어렵도다
른말숨

재지막상호으믄은 큰지라으믄문치를놉히다말숨 한옷은덕덕한미업슨니
의여비릉어천성이샷 알옵갑다천성천고성인 라ᄀᆞ치숍ᄌᆞ옷샷다

수강화앙이ᄌᆞ리전은야 이에화앙두글ᄌᆞ전믹을가쳐

특게녀쵸빅쳑지미로 특별이빈난흘ᄅᆞ빅쳑문으히거럴ᄅᆞ다

슈시희경츄예지모로비딘ᄅᆞ어젹칙이나

귈유ᄌᆞ선귀마지의는시위믁어지과로다

비록이희경즉의예괘츄한ᄃᆞᆫ쳑으로한야곰적칙육칙치한ᄃᆞᆫ티ᄅᆞ릭도 적

을기드리나

그로직즉셔 뎐의물도라보내시던의논지과창뽀기를로
치란말슴 ᄒᆞ므로ᄆᆞᆨ호반
무즈 ᄎᆡ으ᄂᆞᆯ뷔엿ᄂᆞ

각

즘ᄒᆡᆯ쳔감병지위ᄒᆞᆫ야
ᄋᆞ이 상삼오성용지치ᄒᆞᆫ시니

ᄎᆡᆯ쳔감병의위엄을거두어
이에벅
삼황오뎨의성용을ᄂᆞ 을갈ᄀᆞ리ᄉᆞᆯᄋᆞ상ᄒᆞᆫ옷시니

영ᄆᆞᆫ가고ᄂᆞᆫ홀아승졍지음이
모
춘ᄃᆡ쇼가ᄂᆞᆫ시졀ᄅᆞᆫ년지낙이로
각

영ᄉᆞᆫ의ᄎᆡ와북은새벽라밤의승졍ᄒᆞᆫ소ᄅᆡ오
춘ᄉᆞᆫ의ᄃᆞᆼ슐와ᄀᆞᆫ래ᄂᆞᆫ시졀이ᄅᆞᆫ년을ᄒᆞᆫᄃᆞᆯ셔오ᄆᆡᄅᆞ라

이에 삼황오제의 신용과 뉴을 갖추리라 상한옷시니

명군가고는 호야 승정지음이오

춘추효가는 시절을 긍념지나일이라

명신의 적와북은 새벽과 밤의 승정흐소리로

춘추의 등술와 노래는 시절의 흥염흐로 오미로다

황로건혀에 앙 일어지즉 흐고

채화는 시에 천안지유희로다

황로일월은 별니곤에 일월의 비출머므로 시름우리라

채화옹시는 제에 천안의 긴보옹시미 져옹시를 알앗도다

봉명지이축천흐니 궁지은 랑지스고

앙 흐명이즉랑흐니 청흐봉인지즉일로다

명시를 반등화 축천흐니 궁정흐와 은랑의 글을 베프옵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로 화답하리이까 하물며 죽은 자이랴

우랑위 조랑 등에

성머리의 날이 나매 천석 구름이 븕었도다

룡연은 구슬 같은 물이 정히 깊고

일곱 적 높은 물에 열길 무지개 드리웠도다

우랑위 조랑 섯에

층층한 구름 같은 성첩의 취미 느꾹하도다

군왕이 영결의 뼝 갑을 반의 조련하옵시니

일만 혜 불라 일천 등이 줄줄히 호종하도다

우랑위 조랑 남에

봉수 봉죠 와 범만 산 이 보라는 숙에 참예하였도다

우랑위 조랑 남에

봉수범만 망니참 일라

근왕이 영귀의 병갑을 반듯이 조련ᄒᆞ옵시고

만거천등 족족 제라 일만 화불라일 천등이 족족 ᄒᆡ 족ᄒᆞᄒᆞ라

으랑위 조랑남에

붕숙범만 망니참 일라

칠갈문 압히 현ᄒᆞ기 숫돌ᄀᆞᆮ고

으랑위 조랑북에

으운라 쳐 첨 신즉이라

칭천년 광안조니 ᄒᆞ

앙뉵준걱 중일식이라

으랑위 조랑상에

으랑위 조랑남에

붕숙봉죠 와 범만 산흉범 이 보라ᄂᆞᆫ숙에 참ᄇᆡ ᄒᆞ엿ᄉᆞ라

슬위와 ᄇᆡ 영고바라 와ᄇᆡ 에 길이세에 통ᄒᆞ엿ᄉᆞ라

으랑위 조랑ᄒᆞᆫ북에

몽ᄒᆞ 구름 만ᄒᆞᆫ곳의 신숙을 바로 보ᄂᆞᆫ ᄃᆞᆯ라

길ᄂᆡ에 광안길 ᄒᆡ 년 년 ᄒᆞ엿

버들이 봄 거와 ᄒᆞᆫ ᄇᆡ ᄀᆞᆺ ᄃᆞᆯ라

으랑위 조랑ᄒᆞᆫ 우ᄒᆡ

현문규벽광소랑이라
낙남은일봉 오황흔니
학발근선닌선앙이라
오랑위조랑하에
연화만가분니샥로라
붕즈궁강칭 슈림흔니
원장빈쵹명조궁아를라
북원상랑지후에 금탕영공흔고
갈벽미신흔야

현문에 규벽두별이빗치부러딥부러라
낙남현의 그름라남은이 오황을 밧드와시니
학발에 오른신선이 선앙을 늘그지잘 치갈말슴 흐시는듯 오른라
오랑위조랑흔마리
연화니와 블일만집이니 샐로는 환흐라
붕즈로 궁강의 슈흔 잔을 드리니 칠월 현 말슴
원컨대 빈짜름 쵹을 가져름 안의 올녀리로라

금탕은 기리 굿고
업듸여 원흔 오는니 상랑흔 후에
갈 벽이 더욱 새로아

북원상량지후에 금탕영공ᄒᆞ고
갈벽미신ᄒᆞ야

금탕은기리굳ᄀᆞᆫ
업듸여원ᄂᆞᆫᄋᆞᆫᄇᆞᆫᄂᆞ상량ᄒᆞᆫᄒᆞ에
갈뵝이더욱새로아

쳠갈ᄀᆞᆯ금미ᄂᆞᆫᄒᆞ 우ᄌᆞ지어ᄇᆞᆫ상하ᄒᆞ고

낟ᄃᆞ원ᄀᆞᆯ은ᄂᆞᆫᄒᆞ 비ᄆᆡ지ᄉᆞᆨ 오브ᄅᆞᆯ정이ᄅᆞᆯ라

쳠하ᄲᆞᆯ에 보림이희미ᄒᆞᆫᄂᆞᆫ우ᄌᆞ의말ᄒᆞᆫᄃᆞᆫ쩍비ᄉᆞᆨ로하ᄆᆡᄒᆞᆫ고

낟ᄀᆞᆫ머리에ᄃᆞᆯᄋᆞᆫ숨어시ᄂᆞ성쳠법의깃드린가ᄇᆞᆫ미ᄃᆞᆯᄂᆞ니ᄒᆞᆫᄃᆞᆯ라

숙ᄲᆞᆨ주ᄀᆞᆫ듸ᄋᆞᆫ희희ᄋᆞᆨᄀᆞᆫ너ᄇᆞᆨ성이오

오천ᄀᆞᆫ일ᄋᆞᆫ의의호 아ᄒᆞ만년ᄀᆞᆫ이ᄉᆞᆫ라

숙ᄲᆞᆨ주ᄀᆞᆫ듸ᄋᆞᆫ희희ᄋᆞᆨᄀᆞᆫ너ᄇᆞᆨ성의오

이십ᄉᆞ일ᄭᅳᆺ에 셩신ᄉᆞ상랑ᄒᆞ올ᄉᆡ쳑응도쳥ᄒᆞᆼ원셔ᄇᆡ이상
랑ᄆᆞᆫ을지어랑등에너헛더니 하ᄂᆞᆯ을인ᄒᆞᆫ와셔진ᄒᆞᆫ
근즉시게ᄅᆡᆫᄒᆞᆫ니고글에ᄅᆞᆯ오ᄅᆡ

셩인ᄌᆡ셩현ᄀᆡ지의ᄂᆡᄉᆞᆨ유ᄅᆞᆯ공지시탁이오
복ᄀᆡ이
명신강감 형향지덕ᄂᆡᄒᆞᆫ즉ᄲᅳᆯ오지유ᄉᆞᆼ이라

·셩인이현ᄀᆡ의맛랑ᄒᆞᆫ믈ᄌᆡ셩ᄒᆞᆫ오시ᄂᆡ오직토공ᄒᆞᆯ다ᄉᆞᆼ을이
업ᄃᆡ여ᄭᅥᆨᄒᆞᆫ읍ᄂᆞᆫ니 에혜알ᄇᆡ시고
명신이 형향ᄒᆞᆫ오신덕을강감ᄒᆞᆫ구ᄌᆞᆯ오ᄉᆞ랑
오양의ᄂᆞᆸᄒᆞᆫ배ᄅᆞᆯ

ᄆᆞᆫ랑ᄌᆡ등ᄒᆞᆫ니 ᄆᆞᆫ치로온ᄃᆞᆯ뵈이에나ᄉᆞᆸᄃᆞᆫ

ᄀᆞᄅᆞᆫ안ᄀᆞᄌᆞᆫ이로라 신령의ᄉᆞᆯ위박회구으ᄃᆞᆫᄃᆞᆺᄒᆞᆫ도라

거한심보ᄒᆞᆫ고

업덕여 썩 ᄒᆞ옵ᄂᆞ니 에헤아리시고

명신이 형향ᄒᆞ신덕을 감ᄒᆞ오ᄆᆞ소랑ᄒᆞ옵시는 ᄂᆞᆷ은배로다

ᄆᆞᆫ량전 등ᄋᆞᆫ 문쳐로온들 ᄇᆡ이에 나소ᄇᆞᆸ듸

근근ᄒᆞᆫ 약전ᄋᆞᆫ이로 신령의 술위박회 구으듯ᄒᆞᆫ도다

거ᄒᆞᆫ 삼보ᄒᆞ고

유주화지위성ᄋᆞᆫ 비ᄀᆞᆨ이경이라

ᄒᆞᆫ의 삼보ᄂᆞᆫ 세 ᄀᆞᆯ을 응거ᄒᆞ고

오직이 화의 성되오ᄆᆞᆫ

ᄀᆞᆨ의 이경ᄋᆞᆫ 동서두 ᄉᆡ울을 ᄀᆞᆯ가ᄎᆞᆫ리라

개ᄒᆞᆫ남ᄒᆞ오ᄀᆞ지 오ᄅᆞᆼ에 ᄇᆞᆯ가이자 번ᄎᆡ오

약ᄒᆞᆫ 형경의 영지건치에 여러 술어 범위리오

ᄀᆡ개ᄒᆞᆫ남라 홍ᄀᆞ몰ᄅᆞᆼ에 가히 법디못ᄒᆞᆯ재 번ᄎᆡ ᄋᆞᆯ ᄂᆞᆯ러 오단말ᄉᆞᆷ오

ᄆᆡᆺ 형궁라의 영을건치ᄒᆞᆫ매 ᄀᆞᆯᄒᆞᆫ 언디 범위를 ᄎᆞᆨ게ᄒᆞᆯ리오

각시만년 죽지방이모 싹은이만년에 구슬연덕것치오
현설빅니금탕지세라 한술은빅니금탕에형세를베컬도다
산천공호ᄒᆞ니올가걱어오릉이모
관방허셔ᄒᆞ니응장ᄒᆞ도얼궁악이라

산천이공호ᄒᆞ여시니말름각문걱은이오릉에올을ᄒᆞ엿고

관방이허셔더듸다말슴ᄒᆞ여시니장ᄒᆞ도뫼겹겹을쇠예어렵엇도다

월궐귀식지혐길에미숙인화ᄒᆞ고

겹복근존지정거에실뇌신존라

귀복의먹은미점치는법길ᄒᆞ리만자매이미산름의화응을거두엇고

음우상전지예오

미구름셜을ᄒᆞ눌을니지이ᄒᆞ미를드리매실ᄂᆞ시신정의ᄃᆞ이ᄒᆞ미ᄂᆞ리말슴ᄒᆞ여시ᄂᆞ라

겸부근지정거에 실뇌신즈를
그거복의 벅음미는법 겉은전마지매이미삼름의화응물거두었고

미구름쌀을 화물을니 거이흐믈드리매실느신정의동으를힘뇨보었든다
르말슴

음우상전지예우이오

경수쳐민지함중이라

음우와상전에미리우의흐시미오

경수공경과 수셔 와쳐민이다즈찬든다

셥폐고갑즈 비로소러울때에
셥폐전 인년

이러므로

수어 공떡시지묨이라

공떡이처음으로오힌지라

거즈화흥지처야흐

닐희여기를화흥문믈즈음으로브터흐여

흘음구창룽지츄니흐

창룽은즈룽이에니르니

삼한서이백치수강이오
일성참이질길시익라이

치위와더위를세번은매일백치첩이이에배컫고
청과굴형은은갈느치칼길길산이놀개은엿드라

궁실지재감뱡지부ㅣ여무여은이오
창름유치주데유흥이ㄴ실용실학이라

궁실의큼과감뱡의갑을비안개조흠떠구름조고
창름의빠힌배오주떼의나러난배니실느감이오실느즐형이로라

부유여시이수므로은미혹문언이라

근지정상지위신ㅣ은ㄴ막브넝야ㅣ로라

무로이러틀흐히안오엇조보수문화트지못은니라

창름의 빡 힌 배오수 떼의 니러 나는 배니실ᄉᆞ 림이오실ᄉᆞ 길 청이로라

부ᄋᆞᆨ 뻐시이ᄉᆞᆨ므로은 미혹ᄆᆞᆫ언이라

근지정상지위신ᄂᆡ 막블녕야ᄂᆡ로

므릇이러ᄅᆞᆺ흐고아ᄉᆞ굿ᄅᆞ어보ᄉᆞᆫ혹ᄉᆞᆫ드ᄅᆡ뽓ᄉᆞᆫ니라

근로커신의정상을안ᄂᆞ젼안치아니리ᄆᆞᆷᄃᆞ라

성막래호현ᄂᆞ하ᄂᆡ 귀ᄃᆞ칭ᄎᆞᆷ하교아ᄂᆞ이리오

네블젼어ᄉᆞ듕ᄂᆡ 반ᄆᆡ아ᄂᆞ이ᄌᆞᆯ호ᄆᆞᆫ이라

성이에셔현하의고ᄆᆡ업ᄉᆞ니엇ᄂᆡ호굿 한ᄉᆞ와고아ᄉᆞ의ᄭᅳᆺ기만일ᄉᆞᆯ리로

네절이제ᄉᆞ호ᄃᆞᆫ듕에ᄃᆞᆨᄒᆞᆫ호ᄉᆞᆫ신ᄉᆞ를쳐ᄇᆞᆨ여라지게와문에ᄒᆞᆷ만ᄃᆞ지ᄆᆞᆫ호ᄉᆞᆯ트라

이아 ᄀᆞᄃᆞᆫ듕희ᄋᆞᆨ지 청심으로

원거션왕보시지ᄆᆞᆼ전ᄒᆞ실세

우리 구등에 회우일백신령을 권하시는 성심으로써
안케 하라는 말씀

이에 네 님금의 보시베플을 갑
하시려 분부하시는 법전을 드릴새

약왈 성즉 권불발지업이고
신즉 수불즉지공이라

성은 베지 못할 지업을 권하지 않이하고
이러므로 신령은 축방치 못할 공을 드리우지라

축수착수하니 지우일이신 우중지미리오
슈아복아하니 식수억만전 무강지거라

이에 성뵉은이에 못즐너 얻기 하도신해 그을바의 알므랑을 삔이리오

우리 로든 수등고우러 복하시실 의억만의 무강하기지로다

주이우수지신은 기복일건으로 하명왈 성신수라 시절애 강이

슈아복아ᄒᆞ니 식주ᄒᆞ억만전 무강지거라

이에 셩뵉근이에 닐ᄋᆞ샤ᄃᆡ 너ᄂᆞᆫ 억만의 무강ᄒᆞᆫ 지로다

우리ᄅᆞᆯ 슈ᄒᆞᆫ공ᄀᆡ로ᄇᆞᆨᄒᆞᆫ니 실ᄂᆞᆫ 이억만의 무강ᄒᆞᆫ 지로다

주의ᄀᆞᆺᄌᆞ지신은 기복일건ᄋᆞᆨᄒᆞᆫ야 명월셩신ᄌᆞ라ᄒᆞᆫ고 시절애 강이

항츅ᄒᆞᆯ라ᄒᆞᆫ 어시에

ᄌᆞᄒᆞᆸ다너의ᄀᆞᆺᄌᆞ지신은ᄀᆞᆫ날을 졈ᄇᆞᆨᄒᆞᆷᄒᆞᆫ야ᄅᆞᆯ 짐을 쎄워명ᄒᆞᆫ야ᄅᆞᆯ모ᄅᆡ 셩시ᄌᆞ라ᄒᆞᆫ지

ᄌᆞᆯ매 항츅으로ᄇᆞᆨᄂᆞ리ᄋᆞ라ᄒᆞᆫ오시니여시에

상ᄎᆞᆨ셔남ᄒᆞᆫ니 짐ᄃᆡ를 셔남ᄌᆞᆫ에ᄇᆞᆨ

침강등졍각ᄋᆡ로 언덕을ᄇᆡ개ᄒᆞᆷ여ᄀᆞᆫ ᄃᆡ바로ᄒᆞᆷ여도다

ᄌᆞ시ᄃᆞᆫ장어ᄇᆞᆫᄌᆞᄒᆞᆫ고 ᄌᆞ시ᄂᆞᆯᄃᆞᄎᆡᆼ을 ᄂᆞᆫᄃᆞᆼ장ᄀᆞᆺ리기의ᄇᆞᆯᄌᆞᄒᆞᆫ고

뉴ᄒᆞᆨ안ᄃᆞᆼ이길거ᄋᆡ로라 뉴ᄒᆞᆨ뉴슈ᄅᆞᆯ ᄂᆞᆯᄆᆞᆯᄉᆞᆷᄂᆞᆫᄃᆞᆯ 형을 안ᄒᆞᆷ여길거ᄒᆞᆫᄃᆞᆯ로다

전운예이 나ᄇᆞᆫ병니 심ᄀᆞᆷ낭서지 질ᄅᆞ질ᄅᆞ이모

검산중이치ᄇᆞᆫ획ᄒᆞᆫ니 녀영만각지 한한이라

어ᄃᆞᆸᄀᆞᆫ리ᄆᆞᆫ거ᄉᆞᆯᄅᆞᆯ기ᄆᆡ ᄎᆞᆸᄀᆞᆫᄇᆞ러ᄆᆞᆫ거ᄉᆞᆯᄃᆞ리니 세ᄌᆞᆼ섭과ᄃᆞ현감이 질질

ᄎᆞ례ᄋᆞᆺ ᄒᆞᆫ고
ᄀᆞᆯᄋᆞᆸᄉᆞᆷ

의와ᄉᆞᆯ암ᄇᆞᆨ공의사
긴그림 을검ᄇᆞᆨ히ᄒᆞᆷᄆᆡ희고ᄇᆞᆯ존거ᄉᆞᆯ로샤ᄉᆡ케ᄒᆞᆫ니ᄆᆡ러기ᄌᆞᆼ과

긴ᄎᆞᆫ혜 한한긴거
동 ᄒᆞᆫ로라

목석위슈ᄒᆞᆫ니 ᄉᆞᆼᄇᆞᆯ일ᄋᆞ게ᄒᆞᆫ고

누로환고ᄋᆞᆼᄒᆞᆫ니의위ᄌᆞᆨ이ᄃᆞᆼ정이
라

ᄭᅮᆨ셕을ᄇᆞᆨ코ᄉᆞᆷ을ᄒᆞᆫ니게ᄒᆞ라신령을ᄃᆞ리ᄒᆞ편
안케ᄒᆞᆫ단말ᄉᆞᆷ ᄒᆞᆫᄃᆡ날이ᄋᆞᆺᄒᆞᆷᄆᆡ일ᄋᆞ고

누ᄅᆡᄃᆞᆯ너ᄎᆞᆺ시니의지ᄒᆞᆼ여ᄌᆞᆨᄒᆞᆫ안ᄆᆞᆨ검고가ᄇᆡᄆᆞᆷ로라

평ᄌᆞᆼ전려ᄃᆞᆫ엄황ᄋᆞᆨ지ᄉᆞ랑니2

누로 환공의 위중이 등정이라

숙석을 빠르숙운호니게 라신령을드러 편한 호드딘날이 쏫호옵일우고

누로들너셔시니의지능여츅호야무겁고가비옵므라

명경직려는엄황숙지수광니오

올가질츅는상츅거지제치우기를라

브리은궁라지계호는집은엄연이황숙물일에광니남희신

홈 에광니왕 를제수호는도호고

중치는는래와장래박은특구는블곤괴로치우벌일

홈 의제지내물상상호라

의거지즐겁절거슈니호

의로널희여신즐겁절을이긔다가시니

녕장지복니유강이라

녕장호는복니를는리우는배로라

진래산반석지근니호 탁 왕공어즐긍원이오

유츅리슈역지상니호 항 천심어낙음이라

채산과반석의구름진청은니 왕의공이즁원즁앙청이니메나타나시고
츈긔와수목의상쳐를드러뵉시니 하늘의음을낙음의노리시게호듯
등관즁락은즐길이언언이오
길일설강에니앙병이섬섬이라
겹겹싱산의쇠로흔락은산오나온즉 올기를혀언언놉흔
길흔날브른술의체항의 희싱 늘니는신령이오기를섬섬번게 히흔드라
시위은네지됴친이니 이날온큰네를비로슬일을미니
거믁랑즁지흐은모이리 엇러들보즁의즐흔소릭업스리오
슉찬흐야흔 드듸여호얀흔소릭를즈아
용거힐항이라 뻐힐항신령이니 흐기를브라는이다

용거힐항이라 뻐힐항신령이니 흔기를보라는이라

으랑위즐랑등에

묻은귀천의날을묵흔야불구믈덛흔엿스라

신령의눈이봉화와더브러냐번게그는ᄎ

졍안흔믈빔마다 니궁형에보흔는도라

으랑위즐랑흔쉭에

빈흑천산일어져라

등뒤히즉든의에날벙에ᄉ잘드라

원슈귀신연지니흔

원쉬터딕장 이시매신령이ᄉ뜨며그치니

은간비예죽거제라

구름ᄉ이비예쳥각의죽죽흔거치는ᄉ리흔도라

이날은큰네ᄅ비로ᄉ일ᄏᄅ미니

거믁랑숭지흐음이리 엇거들보숭의ᄑᄅ흔소린어보ᄉ리ᄒ

슈찬흐야흔 드딘여흐얌숭남ᄉ리ᄅ름ᄃ야

으랑위로랑님에
산누분쳡갹셩감이라
긔응복즉근슨로니
졍셩은근만셩감이라
으랑위로랑복에
강안쳘쎄쳔심걱이라
년년가호 츄화쳔은
지허붕인공쳥츅이라
으랑위로랑상에
건으졍지회신장이라
뵈쵸나스등셩신은

으랑위로랑은님에
남산누분쳡에즈라스렴훈창이로다
알라라빅빅이근슨큰문 길희복즉흘지니
상셰은근만은훈아일만빅셩의게미츠리로다
으랑위로랑은복에
강안슌석즈믈쎡의일쳔길이곳드라
희망다 츄화압헌불근호위훈
강안붕인의쳥츅훈기잘훈듬허훈로다
으랑위로랑훈으회
건으셩이바로로지매신령의의장이도라오는도다
빗난쵸롸버러셩신을빈훈쵸롱

견우정지회신장이라
녀쵸나스흑성신은
보정쇼망등ᄉᆞ방이라
ᄋᆞ랑위ᄅᆞ랑하에
근우죠공관리야라
보장즁ᄉᆞ셔ᄃᆞ라니
오지신녀등오샤이라
북원상랑지후에스교ᄆᆞᄅᆞᄀᆞ흐고
질ᄉᆞᆫ영신흐야

견우성이바로ᄅᆞ치매신령의의장이드라오ᄃᆞᆫᄃᆞ라
빗ᄂᆞᆫ쵸릭버러셩신을빈혼ᄃᆞᆫᄒᆞᆼ
정즘을보호ᄃᆞᆫ불리은광망을흔갓치로네역흐ᄂᆞᆫᄃᆞ라
ᄋᆞ랑위ᄅᆞ랑ᄒᆞᆫ아릐
기롬진비와가지예브람의뎌들을보ᄂᆞᆫᄃᆞᆺ
보장흔매ᄆᆞᄎᆞᆷ내셔ᄃᆞ과뻐의마ᄂᆞᆫ흐ᄆᆞᆯ기ᄃᆞ릴지니
내알라라신령의힘이ᄋᆞ리사직과ᄃᆞᆯ리로다

네들 희진터 희업고

어비딘 여원들은 업드니 상량흐옥에

여래신의 신력을 마자

현남들이 니강주니 채정만세오

수산선이 마귀부니이 제일명을 라

한울의 든남들 오라흔 강주 데요들은

시던거리 니 채정만세오

천비게는 산선 장슈노는다 요일의게는 귀복 묘흔물 나는다 이니데일일흠난도업이로다

이십오일즁남갑느일은 나이느 흔귀 쳔은히 일주신선 머리에인는

거라 선이의 형체를 인흐여이에 니르러 두쳘은 고근업은 니흐흐흐

은녀 컴스이에 지비 업게 소수나대 천을 씨고 광야를 넘흐야서

남갑 화양느와 마조 즉흐니 그제 도흔 광수간을 업희와

너비 서북 갑느로 더브러 흔 가지로 진 수간에 다 관을 베

이십오일종남각으로일으나이르러한켜쳔으로일주산청버리에앉는
다라 쇠이의형세를인호여에너르러도졀등고준높이니로등등
이는또쳠수이에지브이높게소수나대쳔을끼고광야를굽브이앗셔

남각화앙으로마조들어올으니고제도는광수간으로숍희와
너비셔북각으로러브러혼가지로라만수간에다라숍을베
르고중제를중젼쳠하이린체이니라
이십뉵칠일주젼 한교흥 아글을숙히청영하이거의못차니
장인라도근등쳠심을치뎡일봉뎡지형의맛당히보아
머일거시니외랑을셔젼의비혼뜨도잘혼뜨로초와도련일
뜻을발만들지위혼라 ○ 이십칠일뿔근지셔영보하라
혼뜨중장은의셔혼궤혼니감동칠원정부감관으원정부
재장칠십명의원정부셔리십뉴인은각반일곱지랑일곱위

어사미각식궁장칠백이시보면은일천이백수십명
은각반일지탕일지위어이미분궤호니함반미시삼석
시보이등각중가천칠십이냥은의별근차하호라
칠월월초삼일이의정원시중스제라화성정연이주월
뇌폐만강히근근호면보인호여남성연일회호을리
뉴숙됴심채의말숨을듯주온즉숙하지력이브족호
올넘뎨엄지안니차호오니관서숙수빅등은로금년이
월의비주이를셔회관호야호여남을비호여기드리게호
온거시오니일빅오십등을아직은쳐츄중호면근정영
남창의잇슴은돈일만냥라한명식보에별비호은돈으로천냥
을안으로던쳐호면보근관서숙은수회이미만수오니승책

남창의 잇습는돈일만냥과 현물과 부에 뽑비, 혹은돈으로 천냥
을 안으로 더 채혹 엽게 혹 엽은 관서 숙은 수회 이 의 만 수 여 승 책
이 반 즉시 다 줄 치 못 할 듯 혹 으로 보고 수 정 을 듯 주 은 즉 돈 으로 벗 게
리 엽 혹 은 전 혹 은 다 른 로 엽 은 보 책 의 쁘 으 비 돈 이 쓸 숙 이 에 쉬 노 숩 다
혹 은 이 은 즈 원 을 로 차 돈 을 로 시 행 혹 은 로 미 엇 더 혹 을 리 상
일 의 유 지 ○ 장 용 병 이 제 일 화 성 병 수 의 요 강 이 관 서 숙 더
전 라 병 남 남 창 전 라 한 서 지 부 전 을 로 용 혹 을 로 를 로 연
금 숩 은 관 혹 은 리 라 성 여 이 거 의 다 리 여 간 으 니 이 수 회 전 심
만 냥 을 각 도 의 서 상 리 혹 엽 기 를 기 드 리 으 면 수 엽 전 련 이 부

죽은 올림네 인수 옷은 적본 영봉브 중전 삼만 냥으로 벗
지하 호옵근 각르의 서거 혁전을 나오옵기를 기르려주는 환
본 호올뜻으로 외수의게 블복 호오미엇더 호올리 퇴부니에
의시
존국일들궁을 사일옥니건을 지밈이치 성우현이시면을 뤼라
호근성뇌에이시면을 새라 호노므로 성방거복병이경겁
을보호매 각각그젼성의서응을 호야 벅을 사에보 호근형시
에성아뤼로라 개일산 지나거든 그젼성의서방을 호근거
를드려을 사와 각을록의일체 응호게 호노이는 성을 뤽

희는 약속이라 성뇌강경 호여 각건진 아뤼 삼백의시보에

을보고매각각그젼셩의셔응호고야뷕조산에보호근졍시
에셩안리로관개일산지나거든쓸호고그젼셩의셔방을호근거
를드러조산와각각조죡의일졔셩응호게호야논셩을뎌

희는약속이라셩내강경호여각걸리안린심뵈시보에
그장슘을근을들희야이중집을세우니이니론궁을새라고
향중뎟재산숙이진을는머리에다시쓸러호여슘호고중
셔남삼면이즁망호여거릿기미업드리라집졔는남북이
간에북은온돌이오남은뷕을두를만희나으중졔를베르며
상층쳥판은이간을즁호야수면판을이오간쳥은삼틀로
쓰며낭상을희고이집이녀염뒤호로득뿔이쎈여나면세
관적호근북이잠간그리워시나숙숙이의인면이은명호며
블쳡방을산쉭이호라호니비록새아니라그가히정스를

두엄죽ᄒᆞ더라

초칠일 젼녕외ᄉᆞ됴심태라 츄심일셩묘감등이하
교리장ᄉᆞ등을젹심브ᄅᆡ쥬로ᄂᆡ영감상장관이맛당이
ᄂᆞ려갈거시니외랑근로셔즈비ᄒᆞ야ᄃᆡ령ᄒᆞ라 ○츄심일ᄅᆞᆫ
영감상장관정ᄒᆞᆨ정이하ᄅᆡᄒᆞ야중장리의셔호ᄅᆡᄒᆞ야
감즁ᄋᆞ원정부감관ᄂᆞᆨ원정부ᄎᆡ장ᄂᆞᆨ심ᄉᆞ원화원ᄉᆞ
원정부셔리이십삼인은각반일거랑일거위어삼미각
ᄉᆡᆨ등장칠ᄇᆡᆨ삼명ᄋᆞᄀᆞᆫ일훤삼ᄇᆡᆨ구십구명은각반일거
랑일거위어이미브ᄅᆡᄒᆞᆫ함반미심ᄋᆞᄉᆡᆨ눅두ᄉᆞ등각

중간젼칠십일냥구젼은외랑근차하ᄒᆞ라

십일일셔남암

왕정복고 이십년 십일월 십일일 당일 위에 십미각

십등장 칠백삼십삼 근일 천삼백구십구 관반일 위

당일 위에 이미 불궤 흉악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증가천 칠십일 냥 전운의 당근차 하였다

십일일 셔남암문일 우고우희 혼간집이 있으니 본

셔남을 새라 용을 등 혼 천근 쇠에 검 혼 여울나 흐 찰 혼

논근 줄 로 쏙미니 문 제 로 논 등 암문 라 로 들 치 고 우 희 정 여

장을 베 흐 근 홍 예 너 비 논 칠 척 이 오 즙 희 논 칠 척 오 촌 은

이라 화 양 누 에 행 님 혼 옷 시 면 의 문 으 로 브 련 이 행 혼

오시니 등 북 암 문 에 비 혼 여 잠 간 쉽 근 너 로 써 집 에 삼 들 로

간 청 혼 근 관 문 을 베 럿 더 라

십 이 일 전 년 의 수 됴 십 채 라 즙 벤 도 구 셕 의 원 수 현

관을 갖신 셔룸보진거 ᄒᆞ실거시니 복명ᄒᆞ올날의 성명ᄯᅴ
감등이하 장ᄉᆞ등을 등광쳐의 츄회ᄒᆞᄂᆞᆫ정이 현관각
신을 더브러 안즁ᄒᆞ여 젹과ᄉᆞ를 먹인ᄒᆞᄂᆞᆫ의 쳥지를
장만ᄒᆞ라 ᄒᆞ괘 ᄒᆞᆯ째의 외ᄉᆡ 맛당히 겸칙ᄒᆞᆯ거시니
원ᄉᆞ의 ᄂᆞᆫ진거치 말근ᄒᆞ괘 일에 크게 ᄌᆞᆫ악을 베퍼 ᄒᆞ여
곰갓갓 츄ᄒᆞᆫ근본 복록게 ᄒᆞ라 ○ 이날ᄲᅳᆫ 젼넘ᄒᆞ오샤
리셩ᄯᅴ 이ᄋᆡ 장ᄎᆞᆫ셩ᄒᆞ니 혜셩질ᄯᅴᆫᄒᆞᆫ의 괘ᄒᆞ
괘 ᄒᆞᆯᄌᆞ로 일ᄌᆞ를지일ᄂᆞᆫ ᄒᆞ여 계ᄆᆞᆫᄒᆞᆫ근봉명하거ᄒᆞᆫ기
를기ᄅᆞ려 안즁ᄇᆞᆫ근괘 ᄒᆞ라 ᄲᅳᆫᄌᆞ천 하고ᄒᆞ오샤ᄃᆡ셩

리성연이이제장춧근성공니혜성질연호흔흔의백호
궤흘즈로일즈를지일흔여계믈흔흔붕뱡하거흔기
를기를려안즁부근궤흔라쏘즈젼 하교흔오사천성

연질연호래호궤흔흘린황궁은이금의지업흔수젼라밥라
슬라궁을넌이즈환흔흔황궁인즈즈로린응흔라외
수됴심래뽈라흔여혜성질연호래호궤일즈를금월의
십이일느름궁왓어니심삼일로 젼뎡흔오사론이십이일
느흔슬의쁘를연은느뎡으로서거형흔뻐승지맛강히붕뱡
흔여느려가부근궤흔흔호궤슈궁설즈흔느뎡셔리느려가겁칙
흘러시니일느벚지실흔라
십수일즁응선뎡빗기쏫즈니이는창룡부근의성이라그제픔남
북응선뎡라르믄쏠흔넷버믈의방흔미니부믈베프지아

호고라만들너 뽀오라가 차쳔원성의 네보를쓰 외길을등호
너를성등인지몰동래문 응셩라 ᄀᆞᆺ흔지라 ᄂᆞ변은셕ᄎᆞᆨ이ᄉᆞ등
존에ᄋᆞᆨ미오십칠쳑이오외변은뻐ᄎᆞᆨ이니에ᄋᆞᆨ미ᄌᆞ십일쳑
이ᄇᆡ그ᄅᆞ게시보일쳑ᄋᆞ오촌이라외변의현안셋라ᄂᆞ변의뻐ᄂᆞ
즐네흘베르고ᄋᆞ히ᄂᆞ외ᄃᆡ강을뽀ᄉᆞ외변은원근등안을
ᄀᆞᄎᆞᆯ라ᄂᆞ변은평ᄃᆡ강이ᄇᆡᄃᆡ강안희십ᄆᆞ를희를라아ᄋᆞ흐로
지평이ᄅᆞᆨ니ᄋᆞ젼머리에셕제를ᄂᆞ하원셩ᄂᆞ라ᄉᆞ을등호
게ᄒᆞᆫ니라 ○ 이ᄒᆞᄂᆞ일에셔응셩을ᄅᆞᆯᄎᆞᆨ호노제ᄅᆞᆨ등
응셩라ᄒᆞᆫ가지로ᄃᆡ라만외ᄂᆞ변을라뻑으로뽀근을은이등

라ᄒᆞᆫ쌘근이니이잠간라를ᄃᆞ러라

십오일봉 평안

지정의 뢰니이정머리에 선제를 드하 원정니 칙을 등호
게 호니라 ○ 이등스일에 서영선을 칙등호니 제칙등
영선과 호가지로 라만의 뉘 병을 거느려 봉은의등

랑리 쌘이니이 잠간 리로러라

십오일봉 병각신서룡보낙남현의 선감등이하으로
호니감등으원정부감관칠원정부재장칠십원화
원주원정부서리이십오인은각빅병삼개북여이미
주일리각십등장칠빅으병은주일훤삼빅이십
육명은각빅병이개북여일미주일리블궤호니함
병미십주석십이두주등각주등가천일빅칠냥삼젼
은선정연수차하호라

십칠일 젼왈화성선정연이을드르니금월십오일의

근셩ᄒᆞᆫ라ᄒᆞᆫ니그날ᄉᆞᆼ지를보내여ᄒᆞ게ᄒᆞᆫ즉ᄀᆞᆼ을ᄂᆞ
믈ᄒᆞᆫ여갓갓ᄒᆞᆼ여금즉시ᄅᆞ라보내근감즁랑상이하
ᄂᆞᆫ그ᄒᆞᆼ뎍ᄋᆞ을ᄒᆞᆼᄅᆞᆫ슬부ᄅᆞᆯᄉᆞᄎᆞᆼᄒᆞᆫ기기를려ᄒᆞᆫ여
금ᄂᆞ원ᄅᆞᆯ념ᄎᆞᆫᄒᆞ의드러와복명ᄒᆞᆯ일ᄋᆞᆯ보ᄂᆞ보ᄒᆞᆫ고
오게ᄒᆞᆯ라○정원계왈ᄒᆞᆫ셩여근셩ᄒᆞᆫ읍ᄃᆞᆫ날ᄅᆞ
ᄉᆞᆼ지ᄅᆞᆯ보내여ᄒᆞᆫ게ᄒᆞᆫ즉ᄂᆞ믈ᄒᆞᆫ일ᄂᆞ 병하ᄒᆞᆫ읍
신ᄅᆞ라어ᄂᆞᆫᄉᆞᆼ지진거ᄒᆞᆫ올ᄅᆞ감ᄅᆞᆯ금ᄒᆞᆫ즉ᄂᆞ라 젼왈착
ᄉᆞᆼ지진거ᄒᆞᆯ라
시ᄇᆞ일일비변ᄉᆞᆫ랑ᄎᆞᆼ의ᄒᆞᆫ셩셩여근ᄉᆞᆼ니ᄀᆞᆨ신의ᄂᆞᆺ을ᄅᆞ

벼제왈ᄋᆞ의제ᄒᆞᆫ셩셩여감즁랑상ᄑᆞ시ᄆᆞᆨ의ᄉᆞᆸᄇᆞᆯᄇᆞᆫ

신리라어늬승지진거ᄒᆞ올리감ᄅᆞᆯ금ᄒᆞᆫᄃᆞ라 젼왈좌
승지진거ᄒᆞ라
시ᄇᆞᆯ일이ᄇᆞᆫ수낭쳥이 화셩셩뎍ᄎᆞᆼ니궤신의ᄂᆞᆺ을

벅제왈이제화셩셩뎍감ᄒᆞᆼ랑상표심퇘의ᄉᆞᆫᄇᆞᄅᆞᆯᄇᆞᆫ은
즉혜셩ᄉᆞ쳔ᄂᆞᆨ번ᄇᆞᄅᆞᆯᄌᆞᆷ월시ᄇᆞᆯ일의ᄅᆞᆯᄂᆞᆨᄒᆞᆫ엿라
ᄒᆞᆫ오매감제ᄒᆞᆫᄃᆞ라 젼왈지ᄅᆞ○젼왈화셩셩뎍이
근왼ᄉᆞᆫᄃᆞᆼ장의ᄒᆡᄅᆞᆯ지나ᄅᆞᄅᆞᆨ뎍ᄉᆞᆼ뎍ᄌᆞᆫ뇌심히ᄅᆞᆫ
러라봉명승지ᄒᆞ궤ᄒᆞᆫᄌᆞᆼ의일일히ᄎᆞᆯ치ᄒᆞᆷᄂᆞᆫᄆᆞᆯᄒᆞᆫ근
외방장인ᄋᆞᆫ회랑미젼을별ᄂᆞ더즉근인ᄒᆞᆼ갓기ᄅᆞᆯ빅
라ᄉᆞᆨ신을ᄒᆞᆷ뎌금ᄉᆞ회환을기ᄅᆞ려작년의ᄂᆞᆫ전ᄂᆞᆫᄒᆞᆼ장
인의젼ᄇᆡ래로시상ᄒᆞᆫ즉장ᄉᆞᆫ을ᄒᆞᆯ일을정ᄂᆞ의궤쳥
을ᄒᆞᆼᄒᆞᆷ금ᄉᆞᆨ행회ᄒᆞᆯ근셔을랑상ᄋᆞᆫ감ᄒᆞᆼ랑상을ᄒᆞᆼ

뼈금주별을숑ᄒᆞ보리숑은흑ᄀᆞ을나오기를려가ᄀᆞᆨ안
북ᄒᆞ은안ᄆᆞᆫ으로숑ᄒᆞ고금불등시상숑ᄒᆞ근로리숑을일으로불
북숑ᄒᆞ며아으로숑니래신으로숑ᄒᆞ고금지실숑ᄒᆞ근이편고로로
승지와감숑당상이보아이래로거행ᄒᆞ숑라 ○천영의
ᄉᆞ됴심채라이번ᄂᆞ리은천고래로승지로더브러일일히
ᄒᆞ여숑ᄒᆞ근거행숑ᄒᆞ기미ᄀᆞᆨ삼ᄃᆞ와천ᄀᆞᆨ이낭으로성ᄒᆞ여
스로서차ᄒᆞ숑며의방장인의거ᄉᆞ성병으로ᄉᆞ시성천ᄒᆞ
ᄀᆞᆨ가정니의궤청의보ᄒᆞ며서으로산은장인으ᄉᆞ역ᄒᆞ은일
ᄌᆞ라스로로ᄌᆞ별브로등ᄒᆞ근안북ᄒᆞ은아ᄆᆞᆫ으로아으로ᄂᆞ로아
ᄀᆞᆨ가보ᄒᆞ리라ᄒᆞᆫ 천영ᄒᆞ은ᄉᆞ승지봉명ᄒᆞ궤ᄒᆞ은천로ᄌᆞ로로ᄒᆞ여

슬로써 차하 훈바의방장인의거슨성명을숨시성칙

각가명니의궤칙성의보호며서를산는장인은수명호일

주라슬를주뿌부등호근안부호일안으로그를안

각각 응분으로 줄아 장교와 원역 모군부등은 쟁은 응역훈련복식 정례등과 일제히 신지의 너른
러정제훈뒤 기르리근근악을 장려하여 계하의 버리라
봉명승지정물을 말민아마 등러와 철교위에 나아가
서 항숭여서거든 몬저 집사자 본부 장교 초로 행비훈 는스 환 등이 술병으로 벽리상과 계간의 버려
노코또오정비 디훈나히 나소그은잔 로 벽점잔 러 을로또와 병것히 두게훈라 설영
역감중랑상이 해즉창훈뒤 드러와 위예나아가 북향훈
뒤서근봉명승지하고져오시라 일르거든 감중랑상이 해
라궤훈근승지 철교훈여 을으리정등을 응정훈여 노문
훈느라 선교를 못춘 매로 철교위로나아가 근악작훈여
든 감중랑상이 해 부복 흥 수비훈근악지 을 빗례으로 썩악작과 악지는 아리동이대로
라훈 훈여든 승지궤 훈근랑상이 해 라궤 훈라 집봉재 그속

라는 숭여든승지궤 을근강상이해라궤 을라짚재 즈슥
을거느려 호궤 을뱅 국으든금을승지와강상이 한의
압힌는화버리근악작 승거든승지나버나젼은 칙주압
힌니르러서 항승여서근집ᄉᆞ재강상라드쳥관낭쳥
라장관등을인르승여서제로말민아마영외의니르러
등ᄉᆞ로는화경ᄇᆞ글으북향승여서거든짓ᄉᆞ재 슬을북
어잔으로벅승지의게나오면승지잔을드러강상이하로
을산물ᄉᆞ칙주압힌나아와북향복복숭아바다마
시기를ᄆᆞ근장교와통장등은각각그릇모의서반아맛ᄉᆞ
계간칙주의잇는밧자를집ᄉᆞ재는화먹이게을라 즈레르벅느려

가위로 들어오는 악지승거든 승지로 청하여 위의 내려
계하고 당상이 해 나계하라 악작하여 먹이기 오는
날기를 력악지하고 승지인 하여 본위에 내려서거든 당
상이 해세 번 읍하고 하고 산호하고 부복흥하야 승비
하고 물러나되 봉명승지 정문을 말의 아마 나가거
든 감중당상과 도청 낭청등이 으로 장원암 희 내려
인등에 위로 갈내 숭여 북상중 향숭여 서기를 오는
매집수재 봉명승지를 인도숭여 뜰 전의 내려서 향
숭여 서거든 당상이 진전숭여 읍하고 승지 답읍하
지

리를 베 적시어 아 하고 지보수재 승지를 인도하야 중계로 말인아
리로 오시니라

리를베퍼신아 호근지보살재승지를인도호야중제로말민아
마리상의니르러북향승배셔거든랑상은셔제로말민
아마올나랑상의중벽의셔향호근승지와밋랑상이
궤궁거든집보살재찬반을뻐승지압희드로글을흘
수근을힘호근반을부르표거든승지랑상을로브러상
의표궁근라궁배중제와중문을말민아마나와즉일
의길흔을나북방승게궁라
이날셔쪼르일을으니이르치성으흔근을느히라셔임은
남으로일빅의십보에이시니제로는중북을르의근

느뵌의육증례를느하으로느리게증니라

십브즈일봉 법승지김르슨근이중장리의석선 고느슨을고

래호퀘설형승니이미 천명흑룩에의즈를받즈와인

승세호을리를일르라삼가즐형을서리상리하의각각

위를빈설을호근강낭이해영북영장으로정명의축회

승세기즈리더니승지위의를즈춘근 은코를머금어엄연

히리상에님을매 느문승오시느말슴이지숙히명으영호

오시근 선온을옷시느즈식이쏘호안름나와지척 현체

의 육음을친히즈즙느를호근황봉 어빈의 은악일록

록님씨이니일만손으로 하늘을항호근일만입으로찬

체를부르매즌악소리의응들이즌근사름의화지봄이므

오시고 선온을 옷시는즉시숙이쓰는아름다와지척 현체의 육음을전히드즈옵는듯은황봉 어필의 은악이로

록넘씨이니일만손으로 하늘을향ᄒᆞ는일만입으로천체를부르매근악스러ᄒᆞ을ᄒᆞᆫ드른산ᄅᆞᆷ의화긔봄이므록숙ᄋᆞ이날성거는실노천근의ᄆᆞᆫ일이라의절을ᄃᆞᆺ촌매승지와당상이다시안중ᄒᆞᆫ야당상을ᄅᆞ러올녀보낼서ᄲᅳᆫ 젼교를지숙ᄒᆞ와 벌하ᄒᆞᆫ옷신빨리ᄀᆞᆫ을뵌천의셔ᄇᆞᆫ즙ᄒᆞᆫ근의방중장은젼을원근을제랑ᄒᆞᆷ여ᄒᆞ슬로셔반천을ᄋᆞᆼ이마련ᄒᆞᆫ야어ᄇᆞᆫ즙ᄒᆞᆫ니보ᄂᆞᆫ장인ᄀᆞ모ᄉᆞᆫ이숙히ᄅᆞᆯ시내모숙ᄅᆞᆯᄋᆞᆯ뵌ᄒᆞᆫ요중ᄀᆞᆫ근가ᄅᆞᆯ앙ᄅᆞᆯᄒᆞᆫ근천ᄒᆞᆫ요ᄉᆞᄅᆞᆯ낙부ᄂᆞᆫ야으로숙ᄒᆞᆫ산ᄅᆞᆷ드ᄅᆞᆯ뵝드ᄅᆞᆯ근상

숭미업서본부르는항으로알며역소를지보라고치녁
이는재이에응을는호는각각각호텃질서인인이는련호는
개개히즉천호며써나기를어려워호는빗취진정이나
타나는리라이미취호는쯔븐브를너므라가매벌하호은
상젼라가급호는반젼을더욱처희목리의부란반기
라각각 현을을감츅호며쓰기는소릭일성이진
중호니이에너로러일빅치쳣보이중시를인화로뻑
호며시니엇리리를는갓일크를쎈근이리으이날
호궤에감동랑상일원도쳥일원낭쳥일원감중심

수원정부감관수원정부쾌상수십오원화원수원정부

호역시니엇지리로들은갓일로들썬의리오의날로
호궤에감동량상일원도청일원낭청일원감중십냥

수원정부감관수원정부책장수십오원회원수원정부
서리수십이인각십냥장오백칠십육냥은각백냥삼
개수육수냥칭일러증태수흡수일러오홉백칠홉
명차부칠십일명감은근일백칠십삼냥은각
백냥삼개수육수칠냥칭일러증태삼흡수일러오
홉근일천수백칠십칠명은각백냥이개수육수육
냥칭일러증태이흡수일러니냥미이십일석이두이승
각원칠십수냥육천태수석십삼두칠승이흡각원
칠냥삼천육백십수각원육십수냥오천수각와밋칭

스이뵤갓 즁가쳔이 빅오낭이 쳔이분 함됨쳔삼빅 뉵십일
낭칠젼은외탕로차하ᄒᆞᆫ근가이뵤잡즁가삼빅삼십
삼낭삼십젼이분은청뎍스차하ᄒᆞᆫ뛰장인등청뎍슈칠
십명에각쳔이낭미삼ᄃᆞᆫ별하상쳔이오등의방
청뎍슈ᄂᆞᆫ각각졍도로혜여ᄂᆞᆫ로가급ᄒᆞᆫ근라ᄂᆞᆫ각ᄋᆞᆸ장
슈ᄂᆞᆫ쓸ᄉᆞᆫ일쳬로제급ᄒᆞᆫ니라○봉 명승지김ᄀᆞᆯᄉᆞᆫ장
제ᄒᆞᆫ오뒤신이 청교ᄅᆞᆯ지승ᄒᆞᆫ와본월십ᄇᆞᆯ일슈
원부의ᄂᆞᆯ러십ᄉᆞᆨ일ᄌᆞᆫ식등의등장리의ᄂᆞ아가와
청뎍감등강상ᄅᆞᆫ쳥낭쳥장관장교원뎍등장등ᄋᆞᆯ

원부의 나르러 십수일을 식중의 중장리의 나아가와
청병감중랑상을 청상청장관장교원역중장등을

느믄라 천은과호궤응답는등천을을 너반중응답신의
식천로서행호여수오며 심릴을감중랑상묘심태의
게느리오신바 천병라미 천교를랑일의정상의
신이일체로응정호여보응답는호궤문춘중에외방
설중의만랑히느화보낼자는일일히입회보낼너
삼가 천교니수의로뻐변변히위조호온중의낭수
미천을보올을 천교등수를리로감중랑상을여브
러안중분급을안호여금강강을라가게호중처희
무리히가리나응답을록부역중, 던장인을뻐큰역

신순성으로 읍근무 하옵다 이러틋 하옵신 큰 은혜를
너무 입사와 발을 끌너 금을 즉으로 써 손을 씻거 비옵지 아
니 하옵고 신은 이제 부터 으로 부터 하옵 기를
칠계 하옵 니라 수원 부 녀 수 묘 심태 좌 장계 하오 신 본
월 십 구일 즉 시 흑 에 신 이 병 편 하 지 감 즉 하 옵 기 로 더 브러 동
장 한 의 나 아 가 와 성 명 을 청 납 청 이 하 장 관 장 교 장 인 으 로
등 을 취 회 하 옵 며 삼 가 반 하 하 옵 신 의 첫 로 일 일 히 호
궤 하 온 즉 밧 즈 온 사 람 의 수 로 를 즉 로 하 옵 며 뻑 들 니 오 며 당
일 선 수 등 으 로 ᄒᆞ 보 내 옵 기 로 ᄎᆞ 로 심 칠 일 의 지 하 옵 은

궤 은 응 그 받 즈 은 신 들 믐 의 스 를 들 응 그 룩 홍 뗘 뻣 들 니 오 뗘 당
일 설 수 궁 등 을 ㄷ 하 보 백 읍 기 를 쁘 흔 십 칠 일 의 지 슈 홍 은

천 명 과 천 고 리 로 승 지 와 안 동 홍 뗘 뻘 하 홍 오 신 천 미 를
면 천 의 처 분 즙 홍 읍 ㄴ 옛 ㅅ 로 써 ㅈ 정 ㄹ 의 원 ㄴ 은 을 쉐 안 리
와 반 천 지 ㄱ 를 넉 넉 히 마 련 홍 뗘 가 즙 홍 은 뗘 설 수 궁 거
즉 설 명 과 차 하 홍 은 미 천 안 으 로 설 정 철 ㅇ 을 락 가 명 니 의
궤 철 ㅇ 의 보 홍 은 뗘 ㅂ 는 철 ㅇ 기 치 제 홍 는 니 다